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의미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

강 민 하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의미

지도교수 박 상 철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전공
강 민 하

강민하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본고는 지금까지 ‘첨사(particles)’로 일괄 분류된 만주어 문어 단어를 언어학적 분포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함과 동시에 문장의 가장 말미에 나타나는 단어 dere, kai, ayoo, aise가 동일한 계열을 이루며 인식 양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초기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를 주요 자료로 삼았고, 해당 표현들이 근대 한국어에서 어떠한 표현에 대응하는지 청학서(淸學書)를 통해 확인하였다.

1장에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인 ‘양태’와 ‘인식 양태’에 대한 서술을 Nuyts(2016)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2장에서는 만주어를 서술한 고문헌에서 첨사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였고, Rentzsch(2012)를 비롯한 만주어의 첨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의 첨사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문장 내의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첨사의 의미를 기술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사용한 자료에서 공시적 및 통시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만주어 첨사를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첨사로 분류되었던 bi, akū, -o, dabala, wajiha, unde, be 등은 각각 그 품사를 특정할 수 있음을 밝혀내었으며, 문장에서 제일 뒤에 위치하는 단어들인 {dere, kai, ayoo, aise}가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루며 명제에 양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4장에서는 {dere, kai, ayoo, aise}가 양태 범주 중 하나인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보였다. dere는 인식 양태적 추측(Speculative), kai는 인식 양태적 확신(Deductive), ayoo는 인식 양태적 의구(Dubitative), aise는 인식 양태적 추정(Assumptive)을 표현하는 단어임을 입증하였다.

5장에서는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가 각각 어떠한 근대 한국어 표현에 대응하는지 확인하였다. dere는 대부분 추측의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ayoo는 염려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근대 한국어에 마땅한 대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kai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되었으며, aise는 부가 의문문과 비슷한 모습으로 번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본고는 임의 용어인 '첨사'에 언어학적인 논의를 도입하여, 이를 분포와 의미의 계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재분류하였다. 또한 언어 보편적 의미 범주인 '양태'에 대한 논의를 만주어 문어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자료를 17세기 만주어 문어로 한정하여 논의에 통시적 및 공시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주요어 : 만주어 문어, 첨사, 인식 양태,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s)와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s), 만문노당(滿文老檔), 만문삼국지(滿文三國志), 청학서

학 번 : 2021-25649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이론적 배경 ····· 2
1.2.1. 양태의 기본 정의 ····· 2
1.2.2. 인식 양태 ····· 3
1.2.3. 의미 탐색 범주와 양태 표현의 순서 ····· 5
1.3. 연구 자료 ····· 8
1.3.1. 만주어 ····· 8
1.3.2. <滿文老檔> ····· 9
1.3.3. <滿文三國志> ····· 10
1.3.4. 청학서 ····· 11
1.3.5. 보조자료 ····· 13
1.4. 논문의 구성 ····· 13

2. 기존 논의 ····· 15
2.1. 만주어 첨사를 서술한 고문헌 ····· 16
2.1.1. 청문감 계열 서적 ····· 16
2.1.2. <清文助語虛字> (1730) ····· 19
2.1.3. <同文類解> 語錄解 (1748) ····· 22
2.2. 근대 문법서의 첨사 서술 ····· 25
2.2.1. 형태 및 통사에 따른 분류 ····· 25
2.2.2. 의미에 따른 분류 ····· 27
2.2.3. 의미와 형태 및 통사에 따른 분류 ····· 30
2.3. Rentzsch(2012) ····· 31
2.4. 기존 논의의 한계 ····· 35

3.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른 만주어 첨사의 재분류 ····· 38
3.1. 계열 관계와 인식 양태 첨사 ····· 41
3.2. 첨사로 볼 수 없는 단어 ····· 45
3.2.1. inu, waka ····· 45
3.2.2. bi, akū ····· 49
3.2.3. dabala, unde, wajiha ····· 52
3.2.4. be ····· 55

4.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의미 ····· 58
4.1. dere ····· 58
4.1.1. dere의 의미: 인식 양태적 추측(Speculative) ····· 59
4.1.2. 청유 및 의지로 기술된 dere ····· 60
4.1.3. 강조 및 의문으로 기술된 dere ····· 63
4.2. kai ····· 65
4.2.1. kai의 의미: 인식 양태적 확신(Deductive) ····· 66
4.2.2. kai와 dere의 공통점 ····· 71
4.2.3. kai와 dere의 차이점 ····· 73
4.3. ayoo ····· 77
4.3.1. ayoo의 분포 ····· 77
4.3.2. ayoo의 의미: 인식 양태적 의구(Dubitative) ····· 82
4.4. aise ····· 83
4.4.1. aise의 의미: 인식 양태적 추정(Assumptive) ····· 83
4.4.2. aise의 특징 ····· 85

5. 청학서 번역에 나타나는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 ····· 88
5.1. 추측(Speculative)의 dere ····· 89
5.2. 확신(Deductive)의 kai ····· 92
5.3. 의구(Dubitative)의 ayoo ····· 94
5.4. 추정(Assumptive)의 aise ····· 95

6. 결론 ····· 97

참고문헌 ····· 103

Abstract ····· 109

표 목 차

[표 1] 만주어의 첨사와 선행연구의 분류 ····· 38
[표 2] <滿文老檔> 天命에서 kai와 dere 앞뒤로 등장하는 문장의 유형별 빈도와 비율 ····· 70
[표 3] 청학서에 등장하는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의 빈도 ····· 88
[표 4] 각 의미로 번역된 인식 양태 첨사의 개수 ····· 89
[표 5] 각 의미로 번역된 dere의 개수와 그에 해당하는 근대 한국어 표현 ····· 89
[표 6] 각 의미로 번역된 kai의 개수와 그에 해당하는 근대 한국어 표현 ····· 92

그 림 목 차

[그림 1] Rentzsch(2012: 31)가 제시한 접어의 인식 양태적 강도 ····· 33
[그림 2] 기존 연구에서 '첨사'로 기술된 단어들의 계열 및 그 순서 ····· 45
[그림 3]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확신성 도표 ····· 100

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첨사’로 정의되었던 만주어 단어들을 일반언어학적 연구 방법에 입각하여 분포(distribution)를 바탕으로 재분류하고, 여기서 동일한 계열을 형성하는 단어인 dere, kai, ayoo, aise가 발화된 문장이 전달하는 명제(propositions) 또는 사건의 상태(state of affairs)에 일련의 인식 양태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본래 ‘첨사(particles)’라는 용어는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 구체적인 품사를 특정하기 힘든 단어들을 통칭할 때 사용되었다(Gorelova 2002: 368). 즉, ‘첨사’라는 용어는 해당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목정수 2022: 19). 따라서 ‘첨사’로 분류된 어휘들을 단순히 ‘첨사’라고 언급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분포와 기능을 면밀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만주어 문어 연구에서 용어 ‘첨사’는 특별한 논의 없이 단순히 문말에 위치하는 정체 불분명한 단어들을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었다.

종래의 만주어 문어 연구에서 기술된 ‘첨사’ 범주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명백하게 명사성 형용사 등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가 첨사에 포함되어 기술된 경우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심지어 문말에 위치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 명칭이 ‘어기사(語氣詞)’ 또는 ‘종조사(終助詞)’ 등과 혼용되어 쓰이는 경향도 존재한다. 또한 ‘첨사’는 문장 내에서의 분포를 엄밀하게 고려한 분류가 아니다. 기존의 ‘첨사’ 범주 분류를 살펴보면, 언어학적인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s)와 통합 관계(syntagmatic)를 사용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그리고 첨사가 문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다면 언어유형론적 사실에 따라 이들 첨

사가 인식 양태를 표현할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기존의 논의를 발견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첨사 분류 과정에서 공시적 및 통시적으로 일정한 언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아 그 목록에 혼란이 오는 경우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일반언어학적 틀을 사용하여 만주어 문어의 '첨사'를 엄밀하게 재분류하고 분석한다. 그리고 여전히 문말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확인하여 이들을 '첨사'에 기능의 이름을 추가한 명칭으로 분류할 것이다. 또한 한어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았고 균질한 상태였다고 여겨지는 만주어 문어를 탐구 대상으로 삼기 위해 17-18세기 만주어 문어로[1] 연구 자료를 한정하겠다.

1.2. 이론적 배경

1.2.1. 양태의 기본 정의

양태(modality)란 화자가 명제에 부여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 범주를 가리킨다('qualificational categories': Nuyts 2001: 21-22, Nuyts 2005: 10-11). 시제(tense), 상(aspect) 등의 범주와 달리 양태 범주는 현대 언어학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제대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언어 분석 과정에서 양태가 시제 및 상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이며(Bybee et al. 1994: 176-177), 한편으로는 '양태'라고 불리는 개념들이 '문장 유형(sentence type)'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살펴보자면 '문장 유형'과 '양태'는 다른 개념이므로, 이 둘을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문장 유형'은 화자가 해당 문장을 발

1) 17세기의 <滿文原檔>과 18세기의 <滿文老檔>에 기록된 만주어 문어 사이에 유의미한 문법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상철(2017: 14)의 서술과 문법 형태소 -me에 대해 두 시기를 함께 다루지 못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성백인(1968: 73)의 서술을 고려한다면, 17세기의 만주어 문헌과 18세기의 만주어 문헌을 함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화함으로써 청자에게 기대하는 의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언표 내적 효력(illocutionary force)을 나타낸다(Aikhenvald 2016: 141). 문장 유형에는 기술(declarative), 의문(interrogative), 명령(imperative), 감탄(exclamative) 등이 포함된다. 반면 양태는 전술하였듯이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태'의 정의도 해당 정의를 따른다.

1.2.2. 인식 양태

양태의 하위 범주 설정 방식은 학자마다 다르다.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동적 양태(dynamic modality),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로 구분하기도 하며(Nuyts 2016), 인식 양태와 행위 양태로 크게 양분하기도 한다(박재연 2004: 44-49). 그러나 양태의 하위 범주에 '인식 양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연구자가 동의한다(Nuyts 2016: 39).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는 절(clause)이 표현하는 사건의 상태(state of affairs)에 대한 평가(estimation)나 가능성(likelihood)을 나타내는 양태 범주이다(Bybee et al. 1994: 179, Portner 2009: 122). 다시 말하자면, 해당 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진릿값(truth value)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바로 인식 양태이다. 인식 양태는 평서문을 독립된 절 유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König & Siemund 2007: 288-290), 척도성(scale)을 가진다. 즉, 인식 양태는 확신성(certainty)의 강도에 있어서 일종의 선형성을 가진다.

영어에서는 may, well, probably 등의 표현이 인식 양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1).

(1) 영어의 인식 양태 표현(Nuyts 2016: 38)
가. The doorbell rings, that **may** **well** be the postman.
나. That's **probably** the postman bringing today's newspaper.

인식 양태는 다시 여러 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된다. Palmer(2001:

24-35[2])는 인식 양태의 종류로 '확신(Deductive)', '추측(Speculative)'[3], '추정(Assumptive)'[4]을 제시한다. 여기서 '확신'은 '유일한 결론'(the only possible conclusion), '추측'은 '가능한 결론'(a possible conclusion), '추정'은 '합리적인 결론'(a reasonable conclusion)에 해당한다(Palmer 2001: 25). 영어는 이에 해당하는 인식 양태를 각각 양태 조동사 must, may, will로 표현한다.

(2) 영어의 인식 양태 표현(Palmer 2001: 25)
가. Deductive: John **must** be in his office.
나. Speculative: John **may** be in his office.
다. Assumptive: John **will** be in his office.

본고에서는 여기에 '의구(Dubitative)'도 추가한다. '의구'는 발화하는 명제의 진릿값에 대해 의심하거나(Frajzyngier 2002) 약한 정도로 참일 것이라 예상하는 태도를 가리킨다(Bybee et al. 1985: 165, 1994: 320). 의구는 가장 낮은 인식 양태 강도를 가지며,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포할 수 있다. 일부 언어는 의구를 문법 형태소로 실현하기도 한다. 동부 차드어군(East Chadic)의 Lele어는 형태소 'sá'를 문장에 결합하여 의구를 드러낸다(3가). 몽골어 문어(3나)에서는 어미 '-(u)gujai'[5]가 동사에 결합해 의구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Poppe 1964: 160).

---

2) Palmer(2001: 24-35)는 인식 양태가 명제 양태(propositional modality)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고 여겼으며, 명제 양태는 다시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evidential modality 또는 evidentiality)를 하위 범주로 가진다고 보았다.

3) Palmer(2001: 25)는 'Speculative'에 'Dubitative'라는 이름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Speculative'는 보통 긍정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므로(Bybee 1985: 179) 해당 범주를 'Speculative'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Dubitative'를 몽골어 문어의 어미 -(u)gujai가 나타내는 양태인 '의구'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4) 'Speculative'와 'Assumptive'에 해당하는 한국어 번역어는 임동훈(2008: 222)에서 가져왔다. 한편 임동훈(2008: 222)은 'Deductive'의 번역어로 '연역'을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연역'이라는 표현이 'Deductive' 의미를 가지는 kai의 화용적 기능(4.2 참고)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Deductive'를 '확신'으로 부를 것이다.

5) (3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Poppe(1964)는 해당 몽골어 형태소를 '-(u)ɣuǰai'로 표기하는 반면 今西春秋(1992)는 '-(u)gujai'로 표기한다. 본고에서는 今西春秋(1992)의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3나)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에서의 해당 형태소를 '-(u)gujai'로 표기하겠다.

(3) 의구(Dubitative)의 인식 양태를 드러내는 언어[6)]

가. Lele어(Frajzyngier 2002: 19)

nè *di* *hómyà* ***sá***

make 3M sick **DUB**

'He claims to be sick.'

나. 몽골어 문어(Poppe 1964: 166)

yeke *süid* *bol-**uɣuǰai***

big disaster become-**DUB**

'A great disaster may occur!'

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종합하면, 본고에서 다루는 인식 양태 체계를 (4)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4) 본고에서 사용하는 인식 양태 체계

가. 확신(Deductive)

나. 추측(Speculative)

다. 추정(Assumptive)

라. 의구(Dubitative)

1.2.3. 의미 탐색 범주와 양태 표현의 순서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 요소는 문장 내의 제각기 다른 범위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일반적으로 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 요소는 하나의 절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의미 탐색 범주(scope)'라고 부른다(Nuyts 2016: 48).

의미 탐색 범주의 위치 차이로 인해, 각 의미 범주들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상정되는 순서[7)]가 존재한다. 언표 내적 효력을 발휘하는 수단, 즉

6) 본고에서 인용 표시와 함께 어휘 주석(glossing)이 제시된 모든 예문의 어휘 주석은 인용된 문헌에서 가져온 것이다.

7) '순서' 대신 '위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계'는 생성 문법의 관점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수단은 문장 전체에 걸쳐 작동하므로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 탐색 범주를 가진다. 그리고 인식 양태 표현과 의무 양태 표현이 그 다음으로 넓은 의미 탐색 범주를 가진다. 특히 인식 양태는 문법적인 수단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 자신이 지배하는 절 전체를 자신의 의미 탐색 범주로 가진다(Bybee 1985: 168). 반면 동적 양태는 시제의 의미 탐색 범주에 포함되며 상의 의미 탐색 범주와 비슷한 위치의 의미 탐색 범주를 가진다. 즉, 동적 양태는 시제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의미 탐색 범주 사이의 순서 차이는 결과적으로 어순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양태 표현은 언어 보편적으로 일정한 등장 순서를 가지게 된다. 양태 범주를 포함하여 의미 범주들 사이의 등장 순서를 제시하는 이론에는 기능 (담화) 문법('Functional (Discourse) Grammar': Hengeveld 1989)과 통사구조 제도('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Cinque 2006)가 존재한다. 각 이론이 제시하는 의미 범주의 등장 순서를 나타내면 (5)와 같다.

(5) 의미 범주 표현의 순서에 대한 이론

가. Functional (Discourse) Grammar (Hengeveld 1989)

: aspect – narrow-scope negation – aspect, participant-oriented modality – relative tense – event perception, event-oriented modality, polarity – absolute tense – subjective modality, evidential modality (– illocutionary force)

나.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Cinque 2006)

: (phasal aspects) – voice – (other aspects) – permission – ability – obligation – progressive aspect, durative – volition – habitual aspect – tense(s) – epistemic modality – mood

이를 정리하면 문장 유형 표지가 문장의 가장 바깥에 위치하며, 인식 양태 표지와 증거성 표지가 그 다음, 시제 표현과 의무 양태 표현, 동적

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본고는 생성 문법의 관점에서 만주어를 바라보지는 않으므로, '위계' 대신 중립적인 뜻의 '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양태 표현, 상 표현이 순서대로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6).

(6) 의미 범주 표현의 순서 요약
aspect < dynamic < deontic < tense < epistemic, evidentiality < sentence type

(7)의 일본어 문장이 (6)의 어순을 일부 반영하고 있다. 해당 문장의 술어인 'mat.te i-na.kereba nar-ana-kat.ta=daroo=ne'에서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표지는 비현실 서법 표지 '=ne'이며, 그 다음으로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표지 '=daroo'가 위치한다. 또한 시제 표지 '-kat.ta'보다 의무 양태 표현 '-na.kereba'가 더 아래에 위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7) 일본어의 양태 표현 어순(Narrog 2016: 102)
Kai=wa *mat.te* *i-na.kereba*
PN=TOP wait.[GER be](PRG)-[NEG.CON
*nar-ana-kat.ta=**daroo**=ne*
become-NEG](NEC)-VBZ.PST=**EPI**=ILL
'Kai surely had to be waiting.'

만주어 또한 (6)의 어순 경향성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준다. (8가)의 문장에서는 어휘적 동적 양태 표현인 mute- '할 수 있다' 뒤에 시제 표지인 -rA가 위치하고, 다음으로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의문 표지 -o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나)의 문장에서는 동적 양태를 나타내는 -ki 뒤에 시제 표지 -mbi가 위치하며, 다음으로 인식 양태 표지인 kai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만주어의 양태 표현 어순
가. *labtai* *si* *mini* *loho* *be* *ali-me*
Labtai 2SG.NOM 1SG.GEN sword ACC hold.up-CVB
gai-me *mute-re-o* <天命2:11b>
take-CVB be.able-PRES-Q

‘Labtai 너는 나의 칼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 *geli* *donji-ki* *se-mbi* *kai* <天命4:28b>
again hear-OPT say-IMPF PTCP.EPIS
‘또 들으려 한다.’

1.3. 연구 자료

본 연구에서는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를 주요 연구 자료로 삼았으며, 만주어와 근대 한국어 사이의 대역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학서로 분류되는 문헌들도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아래에 서술된 문헌들 가운데 <滿文老檔>의 본문과 번역은 김주원 외(2019)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 그리고 滿文老檔研究会(1955-1963)에서 가져왔다. <滿文三國志>와 청학서의 원문 입력본은 ‘만주어 및 만주문학 자료 총서구축’ 사업의 결과물의 데이터베이스[8]에서 확인하였으며, 영인본 대조 작업을 거쳤다.[9]

1.3.1. 만주어

만주어(Manchu Language)는 퉁구스어족(Tungusic Languages) 남부어군에 속하는 언어 중 하나이다. 남부어군에는 만주어와 함께 시버(Xibe), 나나이(Nanai), 우디허(Udihe), 오로치(Oroci), 울치(Ulchi), 윌타(Uilta) 등의 언어가 속한다. 이 중에서 만주어는 강력한 제국을 이룩한 청나라(大淸, 1616-1912)의 공용어로 사용되며 다른 언어에 비해 넓은 언어 세력권을 구축하였다. 만주인들 또한 스스로 수많은 고서를 만주어로 번역하고 만주어 뜻풀이 사전을 제작하는 등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비록 현재의 구어 만주어는 ‘절멸이 임박한 언어(nearly extinct language)’로 분류되어 있고 만주어를 구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청나라 시기에 남겨진 방대한 분량의 만주어 문헌이 오늘

8)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ffr.krm.or.kr/base/td037/intro_db.html <Retrieved December 16, 2022>

9) 이외에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만주어 예문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행한 것이다.

날의 만주어 연구에 여전히 도움을 주고 있다.

만주어는 만주 문자(Manchu script)로 기록되었다. 만주 문자는 페니키아 문자의 후손 중 하나인 소그드 문자(Sogdian script)에서 기원하였는데, 이 문자의 계통은 위구르 문자(Uyghur script)와 몽골 문자(Mongolian script)를 거쳐 만주 문자에 이른다. 만주어는 여진 문자(Jurchen script)가 그 생명력을 잃은 후인 16세기 경에는 몽골 문자를 빌어와 표기되고 있었는데, 몽골어와 만주어는 음운 체계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남아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1599년 건주 여진의 수장이었던 누르하치(Nurgaci)가 어르더니(Erdeni)와 가가이(G'ag'ai)에게 명해 만주어를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몽골 문자를 개량하게끔 한다. 이것이 바로 무권점 만주 문자(無圈點 滿洲 文字, tongki fuka akū hergen)이다. 그 후 1632년(天聰 6년) 다하이(Dahai)가 이를 개량해 음성자와 양성자를 구분할 수 있는 유권점 만주 문자(有圈點 滿洲 文字, tongki fuka sindaha hergen)를 만든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만주 문자이다.[10)]

본고에서 말하는 '만주어'는 특별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주어 문어'만을 가리킨다. 만주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남아있었기에 만주어 구어 자료도 상당수가 존재하나, 만주어와 유사하다고 알려진 시버어 구어와 만주어 구어는 만주어 문어와 차이가 크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Kim et al. 2008: 3, Zikmundová 2013). 본고에 등장하는 만주어 예문은 모두 로마자로 표기하였으며, 묄렌도르프 표기법(Möllendorff 1892: 1)을 준수하였음을 밝힌다. 또한 만주어 문어에 등장하는 외래어 표기용 특수 문자는 성백인(1977: 253)의 전사 방식을 따라 로마자로 옮겼다.

1.3.2. <滿文老檔>

<滿文老檔>은 만주어로 작성된 당안류(檔案類) 문헌이며, 건륭제(乾隆帝) 치세인 1774년부터 1778년에 이르는 기간에 <滿文原檔>을 저본으로

10) 본 문단의 내용은 성백인(1977: 185)과 유원수(2014)를 참고하였다.

삼아 제작, 초서체(草書體)와 정자체(正字體)로 4종이 발간되었다. 해당 문헌에는 건주 여진이 발흥하던 1607년부터 이들이 산해관(山海關)에 입관(入關)하는 1636년까지의 역사적 사실이 시기별로 구분되어 유권점 만주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김두현 2008: 262-263).

본고에서 참고 대상으로 삼는 <滿文老檔>은 중국 제1역사당안관(中国第一历史档案馆)이 소장하고 있는 <內閣藏本滿文老檔>이다. <內閣藏本滿文老檔>은 전체 180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81책은 천명(天命) 시기, 61책은 천총(天聰) 시기, 38책은 숭덕(崇德) 시기에 해당한다.[11]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각 시기별로 <滿文老檔>의 약호를 각각 <天命>, <天聰>, <崇德>으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또한 김주원 외(2019)에서 천명(天命) 시기의 <滿文老檔>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였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에서 천총(天聰) 시기와 숭덕(崇德) 시기의 <滿文老檔> 한국어 번역을 참고하였다. 또한 보조 번역 자료로 滿文老檔研究会(1955-1963)를 참고하였다.

<滿文老檔>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은 한문을 대역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滿文老檔>은 처음부터 만주어로 기록된 문헌인 <滿文原檔>(또는 <舊滿州檔>)을 변개하여 만든 문헌이다.[12] 즉, <滿文老檔>은 상대적으로 한어의 영향을 적게 받은 문헌이다. 따라서 <滿文老檔>은 만주인들의 순수한 언어 직관을 확인할 수 있는 일차적인 사료라고 할 수 있다.

1.3.3. <滿文三國志>

본고의 <滿文三國志>는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작성한 정사(正史) <三國志>가 아닌, 소설 <三國志演義>를 만주어로 번역한 서적을 가리킨

11) 서력기원으로 환산하면 각각 1607년 ~ 1626년, 1627년 ~ 1636년, 1636년이다. 이때 '天命' 연호에 해당하는 시기 중 1607년부터 1616년까지는 아직 누르하치가 후금의 건국을 선포하지 않았던 시기이지만, 편의상 1607년부터 1616년까지도 '天命' 연간으로 구분하겠다.

12) 한편 <滿文原檔>의 정확한 간행 시기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의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17세기 초로 추측된다(김두현 2008: 272).

다. <滿文三國志>는 크게 두 번 간행되었는데, 첫 번째 간행은 순치(順治) 7년(1650)에 키충거(Kicungge) 등이 황제의 칙서를 받들어 이루어졌다. 이 판본은 병기되는 한어 제목 없이 <Ilan gurun i bithe>라는 제목만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간행은 옹정(雍正) 연간인 1723년과 1735년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추측된다(岸田文隆 1990: 89-97).[13]

본고에서 연구 자료로 삼는 <滿文三國志>는 옹정(雍正) 연간에 간행된 <滿文三國志>이다. 해당 <滿文三國志>는 총 24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滿文三國志>의 소장본 중 파리국립도서관 소장본(No. MANDCHOU 123)을 <滿文三國志> 연구 자료로 채택하였으며, 약호로는 <滿三>을 사용하였다.

1.3.4. 청학서

청학서(淸學書)는 조선 시대 역관 양성 기관이자 외국어 연구 기관이었던 사역원(司譯院)에서 만주어 학습을 위해 발간한 일련의 서적이다. 청학서는 크게 회화 교재, 독본 교재, 만주어 사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연규동 2014: 43-44), 이들을 모두 합하면 10여 종에 달한다. 청학서는 대부분 1704년에 초간본이 간행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현재 남아있지 않으며, 현존하는 판본은 모두 중간본이다(최계영 2020: 185). 본고에서는 양태 의미가 잘 드러나는 '회화 교재'와 '독본 교재'로서의 청학서를 주로 다루고, 여기에 속하는 서적인 <淸語老乞大>, <三譯總解>, <八歲兒>, <小兒論>에 등장하는 예문의 출전을 각각 <淸老>, <三總>, <八世>, <小兒>로 둘 것이다.[14]

<淸語老乞大>는 고려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하였던 중국어 회화 교재인 <老乞大>를 만주어로 옮기고 역관 김진하(金鎭夏)가 감수한 문헌

13) 黃润华(1983)은 만한합벽본 <滿文三國志>가 玄, 貞은 피휘하지만 弘은 피휘하지 않으므로 해당 <滿文三國志>가 옹정 연간에 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從漢文中 "玄", "貞" 均已避諱, 而 "弘" 字未避這一情況推斷、這一滿漢文合壁本應是雍正年間所刻。" (黃润华 1983: 7).

14) 이하 나열되는 청학서들의 정보는 모두 연규동(2014)에서 가져왔음을 밝힌다.

이며, 현존하는 판본은 영조 41년(1765)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清語老乞大>는 총 8권 8책 구성으로 <老乞大>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15] 중국 북경으로 무역을 하러 간 상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해당 서적은 다른 노걸대류 문헌과 비슷하게 '만주어 문장-만주어 문장의 발음을 한국어로 옮긴 것-근대 한국어 풀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서적은 구어에 가장 근접한 만주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만주어 연구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박상철 2022: 114). 하지만 만주인이 아닌 조선인이 근대 한국어를 만주어로 옮긴 문헌이기 때문에 '조선어스러운' 만주어 표현이 존재하고, 따라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다만 <清語老乞大>는 완성되고 난 뒤 만주 지방의 영고탑(Ningguta)에 머무르던 만주인 비터시(bithesi, 書寫官)에게 검토를 받았다고 전해진다(연규동 2014: 45).

<三譯總解>는 <三國志演義>의 만주어 번역인 <Ilan gurun i bithe>에서 일부를 가져와 한국어로 번역한 서적이다. 현존하는 <三譯總解> 판본은 <清語老乞大>와 마찬가지로 초간본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영조 50년(1774)에 제작되었다. <三譯總解>는 총 10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관 김진하(金振夏)와 고사언(高師彦)이 제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박상철 2022: 117). <三譯總解>의 번역문의 구성은 <清語老乞大>와 동일하며, <Ilan gurun i bithe>와 그 개수본 <滿文三國志>에서 원문을 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八歲兒>는 사역원에서 간행한 서적이며, 현존하는 판본은 정조 1년(1777)에 간행된 판본이다. 해당 서적은 본래 여진학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청학서로 바꾸면서 중간한 서적이다(고동호 2015: 99). <八歲兒>는 <清語老乞大> 및 <三譯總解>보다 분량이 현저하게 적으며(12장), 간단한 문장과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초급 만주어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연규동 2014: 47). <小兒論> 역시 15장의 적은 분량으로 구성된 만주어 교재로, <八歲兒>와 마찬가지로 여진학서에 포함되어 있던 서적을 중간한 문헌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정조 1년(1777)에 간행되었다.

청학서를 다룰 때는 이들이 만주인이 제작한 문헌이 아니라 조선인이

15) 이는 모든 노걸대류 문헌에서 동일하다(연규동 2014: 44).

한국어 직관을 가진 상태로 작성한 문헌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만주어 원문이 존재하는 <三譯總解>를 제외하면 청학서에 기록된 만주어는 만주인의 직관이 온전하게 반영된 만주어라고 보기 힘들다(고동호 2015: 116). 또한 만주어와 한국어의 근본적인 언어 구조 차이로 인해 본문과 번역문이 들어맞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간노 히로오미 2001). 그럼에도 청학서는 당대 조선인들의 만주어 연구 성과를 담고 있으며, 근대 한국어의 단면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1.3.5. 보조자료

본고에서는 상술한 <滿文老檔>. <滿文三國志>, 청학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만주어 문헌을 활용하였다. 이 중 <御製清文鑑>, <御製增訂清文鑑>, <漢清文鑑>은 사전(청문감류)에 해당하며, <清文啓蒙>은 문법서에 해당한다. 해당 문헌들은 본고에서 도출한 결론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였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만주어 문장을 가져와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 외에 사용한 문헌으로는 <滿文金瓶梅>(약호: <滿金>)와 <滿洲實錄>(약호: <滿實>)이 있는데, 해당 문헌은 각각 소설과 실록이다. <滿文金瓶梅>는 특수하게 예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였다. <滿洲實錄>은 만한몽 합벽본(滿漢蒙 合壁本)이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만주어에 대응되는 몽골어 표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였다.[16]

1.4. 논문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만주어를 메타언어적으로 서술한 고문헌도 포함하여 지금까지 만주어 첨사에 대해 논

16) <御製清文鑑>, <御製增訂清文鑑>. <漢清文鑑>, <清文啓蒙>의 서지 사항은 2.1을 참고하라. <滿文金瓶梅>의 서지 사항은 早田輝洋(1998)를 참고하고, <滿文實錄>의 서지 사항은 도정업(2015)을 참고하라.

의한 연구들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한계점을 살핀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만주어에서 ‘첨사’ 범주로 묶여 있었던 단어를 재분류해 첨사로 볼 수 없는 단어들을 그 이유와 함께 분석에서 배제한다. 더불어 여전히 ‘첨사’로 남아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모두 인식 양태를 표현하면서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하여 ‘인식 양태 첨사’로 재명명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렇게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첨사들의 개별적인 의미와 분포를 기술한다. 5장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첨사들이 청학서에서 어떠한 근대 한국어 표현에 대응되는지 확인한다.

2. 기존 논의

본고는 만주어 문어의 ‘인식 양태 첨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만, 인식 양태 첨사를 본격적으로 논하려면 이들을 포함하는 ‘첨사’ 전체에 대한 논의를 확인해야 한다.[17] 이는 만주어의 첨사를 다룬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첨사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류하면서 그 기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거나, 첨사 하나만을 개별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식 양태 첨사 역시 다른 첨사 및 단어와 계열 관계 및 통합 관계를 이루며 상호작용하므로,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기능을 면밀하게 밝히려면 만주어 문어의 첨사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주어 문어의 첨사를 연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고문헌은 <御製淸文鑑>을 비롯한 청문감 계열의 문헌이다. 본고의 ‘청문감 계열 문헌’은 <御製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漢淸文鑑>[18]을 가리킨다. 이들 문헌의 서술은 일차적으로 만주인의 직관에 기초하므로, 해당 문헌을 통해 만주어 문어가 널리 사용될 당시 만주인의 언어 습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청문감류 이외에 본고에서 참고한 만주어 관련 고문헌은 <淸文助語虛字>와 <同文類解> 語錄解이다. <淸文助語虛字>는 18세기에 작성된 만주어 문법서이다. 해당 문헌은 비록 한어로 작성되었지만 만주인이 자신의 직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만주인의 만주어에 대한 의식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同文類解> 語錄解는 조선에서 간행되었지만 <淸文助語虛字>를 저본 중 하나로 삼으므로[19] 만주인의 직관을 반영

17) 다만 청문감 계열 문헌, <淸文助語虛字>, <同文類解> 語錄解의 첨사에 대한 서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분량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식 양태 첨사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dere, kai, ayoo, aise’에 대한 서술만을 확인한다.

18) <漢淸文鑑>은 조선인의 직관이 반영된 문헌이나, 저본은 역시 <御製增訂淸文鑑>이므로(최계영 2016: 3) 만주인의 직관을 확인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19) 김양진·신상현(2017: 182)에 따르면 <同文類解> 語錄解는 <淸書指南> 虛字解와 <淸文

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이루어진 만주어 첨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만주어의 첨사 전반을 개괄하고 분류하는 연구이다. 여기에는 Захаров(1879), Пашков(1963),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季永海 外(1986), 上原久(1960), 津曲敏郎(2001),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Аврорин(2000), Roth Li(2000), Gorelova(2002)가 포함된다(2.2 참고). 두 번째 부류는 만주어에서 양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면서 여기에 첨사를 포함하는 연구이다. 해당 분류에는 Rentzsch(2012)가 속한다(2.3 참고).

2.1. 만주어 첨사를 서술한 고문헌

2.1.1. 청문감 계열 서적

본고에서 지칭하는 '청문감 계열 서적'은 <御製清文鑑>, <御製增訂清文鑑>, <漢清文鑑>의 세 서적이다. 이들은 만주어의 단어를 만주어 또는 한어로 풀이해 둔 사전이며, 국가 주도로 진행된 만주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성백인 1999a: 148).

<御製清文鑑>(1708序)은 마르간(Margan)과 마치(Maci)가 강희제의 명을 받들어 주도적으로 편찬한 사전이다. <御製清文鑑>은 최초의 청문감류 서적이자 만주어로만 구성된 사전이며, 12,111개의 어휘를 의미 범주에 따라 36부 280류로 분류해두었다(성백인 1999a: 151, 최계영 2017: 25). 해당 서적은 본래 한문 제목 없이 <han i araha manju gisun i buleku bithe>라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다. <御製清文鑑>이라는 한어 명칭은 후대에 간행된 <御製增訂清文鑑>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최계영 2016: 3).

<御製增訂清文鑑>(1771序)은 만한합벽(滿漢合壁) 만주어 어휘 사전으로, <御製清文鑑>을 바탕으로 두었으나 어휘를 보강해 그 수를 18,656개

啓蒙> 清文助語虛字를 저본으로 삼았다.

로 늘렸다(성백인 1999a: 153, 최계영 2017: 25-26). <漢淸文鑑>(1779 추정)은 만주어 어휘를 한문 및 근대 한국어로 풀이해서 수록한 사전으로, 그 기반은 <御製增訂淸文鑑>이지만 독자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漢淸文鑑>은 다른 청문감 계열 서적과는 달리 조선의 사역원(司譯院)에서 제작하였으며, <御製增訂淸文鑑>에서 불필요한 어휘를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쳤다(최계영 2016: 6-20).

1) dere

dere는 청문감 계열 서적에서 약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서술된다(9).

(9) dere에 대한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

가. <御製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kenehunjere mudan. uttu dere, tutu dere sere jergi gisun de baitalambi.
'의심하는 느낌이다.「이와 같으리라」,「저와 같으리라」 하는 종류의 말에 사용한다.'

나. <漢淸文鑑>: 'ᄒᆞ여시리라' (想是呢)[20]

2) kai

청문감 계열 서적에 나타나는 kai에 대한 서술은 아래와 같다.

(10) kai에 대한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21]

가. <御製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gisun i mohon i mudan. umesi yargiyan, umesi inu sere gūnin. luwen ioi bithede, dzy gung hendume, urunakū abkai sindaha enduringge dere, geli muten ambula kai sehebi.
'말의 끝 표현이다.「매우 진실이다」,「매우 옳다」 하는 생각이

20) <漢淸文鑑>의 내용에서 근대 한국어 대응 표현은 작은 따옴표(' ')로, 한어 대응 표현은 괄호로 감쌌다.

21) <御製淸文鑑>은 한어에 대한 만주어의 문화적 동등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서삼경 등의 고전에서 상당수의 예문을 가져왔다. 이러한 예문들은 "긴 맥락 속에서 보면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전후를 보지 않고서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다"(정제문·김주원 2008)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당 예문들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 다음, <四書栗谷諺解>(1749) 등에 나타난 현토 자료를 각주로 추가 제시하겠다.

다. <論語>에서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선생님[=孔子]은] 필히 하늘이 내신 성인[←성스러움]이실 테고 또한 능함이 많으시다.”[22]고 말하였다.’

나. <漢清文鑑>: (業已完口氣)

청문감 계열 서적을 통해, 만주인들은 kai가 ‘진실’ 또는 ‘확실’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제시된 예문에서 kai는 ‘반드시[必定]’의 뜻을 가진 urunakū와 공기하고 있으므로, kai가 강한 추측과 연관되는 의미를 나타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漢清文鑑>에서 kai는 대응되는 한국어 표제어 없이 ‘이미 완료된 일을 나타내는 어기(業已完口氣)’라는 설명만 덧붙여져 있다.

3) ayoo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에서 ayoo와 dere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예문을 통해 만주인들이 ayoo를 염려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2.1.2에서 후술하듯이 이것이 ayoo가 드러내는 주된 의미라고 보고 있었다. <漢清文鑑> 역시 ‘유의하여 두려워하는 어기(惟恐口氣)’라 하여 ayoo가 공포의 감정도 표현함을 서술하였다. 한편, <漢清文鑑>에 나타나는 ayoo는 kai와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근대 한국어 단어를 가지지 않는다.

(11) ayoo에 대한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

가. <御製清文鑑>, <御製增訂清文鑑>: kenehunjere mudan. uttu ayoo, tuttu ayoo seme gisurembi. geli ayoo sembi. luwen ioi bithede, dzengdzy i henduhengge, bi inenggidari ilan hacin i mini beye be kimcimbi, niyalmai jalin bodoro de tondo akū ayoo, gucusei baru guculere de akdun akū ayoo, ulaha be ureburakū ayoo sembi sehebi.

‘의심하는 표현이다. 「이와 같을까」, 「저와 같을까」처럼 사용한

22) 子貢曰 固天縱之將聖이시고 又多能也ㅣ시니라 <論語栗谷先生諺解2:43a>

다. 또는 「할까」라고 말한다. <論語>에서 증자(曾子)가 한 말이다. “나는 날마다 세 가지 일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내 몸을 살펴본다]. 사람들의 이익을 헤아릴 때 정직함이 없을까 염려한다. 친구들을 향해 사귈 때 신실함이 없을까 염려한다.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걱정한다”[23]라고 말하였다.’

나. <漢淸文鑑>: (惟恐口氣)[24]

4) aise

aise를 추측의 첨사로 보는 현대의 연구들과는 달리(2.2 참고) 청문감 계열 서적에는 aise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직접적인 서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aise에 대한 서술에는 dere, ayoo와 마찬가지로 ‘kenehunje-(疑惑/의심하다)’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aise 또한 dere, ayoo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aise에 대한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

가. <御製淸文鑑>, <御製增訂淸文鑑>: kenehunjeme bodome gisurere mudan.

‘의심스럽게 생각하며 말하는 표현이다.’

나. <漢淸文鑑>: ‘혹 그런가’ (或是)

2.1.2. <淸文助語虛字> (1730)

<淸文助語虛字>(1730)는 <淸文啓蒙>에 포함되어 있으며, 만주어 문법 형태소의 종류와 의미를 기술한 서적이다. <淸文助語虛字>가 포함된 <淸文啓蒙>(1730)은 만주어의 회화 및 문법이 종합 기술된 문법서이며, 만주인이 한어로 기술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현존하는 <淸文啓蒙>의 판본

23) 曾子曰 吾ㅣ 日三省吾身ᄒᆞ노니 爲人謀而不忠乎아 與朋友交而不信乎아 傳不習乎애니라 <論語栗谷先生諺解1:2b-3a>

24) 이 뒤에는 ‘一云 ayao’라는 추가 설명이 존재하는데, ‘一云’은 <御製增訂淸文鑑>에서 동일한 의미어 단어를 하나로 묶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표시다. 자세한 설명은 고동호(2000)를 참고하라.

에는 크게 옹정본(雍正本)과 건륭본(乾隆本)이 있는데(松岡雄太 2005: 57-58), 옹정본은 1730년에서 1732년 사이에 걸쳐서 간행되었고 건륭본은 1771년에서 1787년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落合守和 1986: 112-113). 본고에서 사용하는 <清文助語虛字>는 竹越孝(2016)가 집대성한 본으로, 1730년 간행본을 기본으로 삼고 1732년 간행본으로 보충하였다. 해당 문헌의 한국어 번역은 <清文助語虛字>를 저본 중 하나로 삼았다고 추정되는 <同文類解> 語錄解의 번역인 김양진·신상현(2017)을 참고하였다.

1) dere

dere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에는 청유로서의 dere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인칭 복수형 주어와 공기하는 청유 표현인 '-ki dere'(도정업 2021)[25]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에 의하면 dere는 'perhaps'(Norman 2013) 또는 '응당'으로 번역이 가능한 ainci와 공기하는 비율이 높고, 그렇기에 이를 추측의 양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13) dere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

想是罷字。使得罷字。耳字。乃想是這樣罷猜度之語。在句尾单用聯用俱可。此上必用ainci字照應。亦有不用者。乃省文之意耳。實解方。面。臉。桌子。

'dere는 「想是罷[아마 그렇다]」, 「使得罷[아마 그렇다]」, 「耳[따름이다]」로, 곧 추측하고 이와 같이 의심한다는 말이다. 어구의 끝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첨사들과] 연이어 나타날 수 있다. 이 어휘는 ainci[아마]가 이전에 나타나 조응해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ainci가] 사용되지 않는 문장들도 있다. 단지 문장의 의미를 살피는 말이다. 실사로 풀이하면 「방향[方]」, 「면[面]」, 「얼굴[臉]」, 「탁자[桌]」와 같다.'

25) -ki는 원망의 어미이고, 1인칭 복수형 주어를 가지면 청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인칭 복수 주어를 가지는 -ki에 dere가 통합된 형태도 청유로 해석되었으나, 본고의 4.1.2에 따르면 이 때의 dere는 청유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기능을 수행한다.

2) kai

<清文助語虛字>의 kai는 청문감 계열 서적과 마찬가지로 '확실'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청문감 계열 서적과는 달리 단언의 표현으로도 서술되어 있는데, 한문 또는 백화문에서 哉, 也, 啊는 감탄이나 확언을 나타내는 어조사다. 또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에 의하면 kai는 이미 일어난 일 이외에도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는 내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kai는 문장의 시제와 상관없이 결합한다고 볼 수 있다.

(14) kai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
哉字。也字。啊字口氣。乃將然已然。自信決意之詞。
'kai는 「哉」, 「也」, 「啊」의 말씨[口氣][26]로 곧 예정[將然]과 완료[已然]이다. 「자신(自信)의 결의(決意)」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3) ayoo

<清文助語虛字>는 청문감 계열 서적과 동일하게 ayoo가 공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청문감 계열 서적과는 달리 ayoo를 두려움의 어미 -rahū와 함께 서술하고 있는데, 해당 서술을 통해 만주인의 언어 직관 속에서 이 두 단어의 의미 차이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清文助語虛字>에 따르면 -rahū와 ayoo의 유일한 차이는 분포이다. ayoo는 반드시 분사 어미 -rA 뒤에 독립적으로 와야 하는 반면 -rahū는 동사의 어간에 바로 결합할 수 있다. 하지만 ayoo에 적용되는 이러한 분포의 제약이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동사 어미 -mbi, -hAbi 뒤와 존재부정을 나타내는 불규칙 동사 akū 뒤에도 ayoo가 나타나는 용례가 17세기 만주어 문어에서 문증되며,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유형의 ayoo가 -rA 뒤에 나타나는 ayoo보다 많다.

(15) ayoo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
此二字俱是。恐其字。恐怕字。ayoo在句尾單用。上必用ra. re. ro等

26) 김양진·신상현(2017: 200)의 해석은 '구어/입말'이다.

字。rahū在字尾聯用。

‘[rahū와 ayoo] 두 어휘는 모두 공포스러운 것, 무서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ayoo는 문말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ra, re, ro가 앞에 사용되어야 한다. rahū는 어말에 연합형으로[聯用] 나타난다.’

4) aise

<清文助語虛字>는 청문감 계열 서적들과는 달리 대응되는 한어의 나열을 통해 aise에 추측의 의미가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한어 ‘想是’, ‘想必’, ‘情敢’은 모두 어떤 문장이 화자의 생각 속에서 나왔고, 화자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그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또한 aise가 ainci와 같은 의미라고 명시함으로써 aise가 추측을 나타냄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 aise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은 aise가 kai, dere, ayoo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가장 끝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16) aise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

想是字。想必字。情敢字。乃想當然。煞尾之詞。與ainci字義同。

‘「생각건대 그렇다」, 「생각건대 필히」, 「참으로 감히」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에 생각하면 당연하다」로, 가장 끝에 오는 어휘다. 「ainci」와 의미가 같다.’

2.1.3. <同文類解> 語錄解 (1748)

<同文類解>(1748)는 <漢清文鑑>과 마찬가지로 조선 사역원에서 간행한 만주어 어휘집 및 해설서이다. <同文類解>는 <漢清文鑑>보다 앞선 시기에 간행되었으며, 당시에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었던 만주어 사전으로 보인다(성백인 1986: 242). 특히 <同文類解>의 후반부에는 만주어 문법 형태소들의 뜻풀이와 예문을 수록한 ‘語錄解’가 실려 있기 때문에 만주어의 첨사에 대한 조선인의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도 알 수 있다.

아래의 한문 번역은 <同文類解>를 현대 한국어에 맞게 번역한 김양진·신상현(2017)의 역주를 가져왔다.

1) dere

dere에 대한 서술은 <同文類解>와 <淸文助語虛字>가 동일하다. 또한 <同文類解>가 제시한 근대 한국어 대응 단어는 <漢淸文鑑>의 'ᄒᆞ여시리라'와 다른 'ᄒᆞ리라'인데, 전자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점이 있다.

(17) dere에 대한 <同文類解> 語錄解의 서술

dere 想是罷字. 使得罷字. 耳字. 即ᄒᆞ리라字意. 此想必用 ainci 字照應. 亦有不用者. 乃省文之意耳. 如云. 想必古禮就是這樣罷 ainci julgei doro dere uthai uttu dere.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자」는 말과 어조사 이(耳)에 해당하는 말이다. 「-ᄒᆞ리라」의 의미이다. 이 어휘는 ainci가 이전에 나타나 조응해서 사용되어야 하지만, [ainci가] 사용되지 않는 문장들도 있다. 단지 문장의 의미를 살피는 말일 뿐이다. 다음처럼 사용한다. 「생각건대 필히 오래된 예법이 이 같으리라」'

2) kai

<同文類解>에 나타나는 kai에 대한 서술은 <淸文助語虛字>와 같지만 예문이 추가되어 있으며, <漢淸文鑑>에 없던 근대 한국어 대응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 <同文類解>가 kai에 대해 제시하는 'ᄒᆞ도다'는 중세 한국어의 의외성 표지였던 '-돗/옷-'에서 파생 및 발달한 표지로(가와사키 케이고 2016: 282), 근대 한국어에서도 역시 놀람, 감탄 및 의외의 의미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kai 역시 비슷한 의미를 드러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 kai에 대한 <同文類解> 語錄解의 서술

kai 哉字. 也字. 啊字口氣. 乃將然已然自信決意之詞. 即ᄒᆞ도다字意也. 如可行曰 yabuci ombikai 大哉問曰 amban kai fonjin 之類也.

'kai는 어조사 재(哉), 어조사 야(也), 어조사 아(啊)에 해당하는 어기

[口氣]이다. 장차 그렇게 될 것이나 이미 그렇게 된 것이나, 스스로 믿어서 뜻을 정해 마음을 굳게 먹은 말과 같은 말이다. 즉, 「-하도다」의 의미이다. 「가면 된다」, 「크도다, 물음이여」[27]의 종류이다.'

3) ayoo

<同文類解>의 ayoo는 <淸文助語虛字>에서와 마찬가지로 -rahū와 함께 기술되고 있다. 또한 대응되는 한국어 단어를 제시하지 않은 <漢淸文鑑>과 달리 ayoo의 대응어로 'ᄒᆞᆯ까'를 제시하고 있다. <同文類解>는 ayoo의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된 -rahū의 예문에서 -rahū가 '憂'와 함께 나타나므로 ayoo 역시 근심을 표현하는 단어로 볼 수 있다.

(19) ayoo에 대한 <同文類解> 語錄解의 서술

rahū, ayoo 恐其字. 恐怕字. 即ᄒᆞᆯ까字意. rahū 在字尾聯用. ayoo 在句尾單用. 想必用 ra re ro 等字. 如云. 父母唯其病之憂 ama eme damu nimerahū seme jobombi.

'rahū와 ayoo는 공포스러운 것, 무서운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할까」의 의미이다. rahū는 어말에 접해서 나타난다. ayoo는 문말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며, 반드시 ra, re, ro가 앞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음처럼 사용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만 아프지 않을까 하여 근심하였다.」'

4) aise

aise는 <同文類解> 語錄解에 등장하지 않는다.

27) 김양진·신상현(2017: 200)은 amban kai fonjin을 '큰가 하고 묻다'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論語栗谷先生諺解>의 '子曰 大哉라 問이여'에 대한 언해인 '子ㅣ ᄀᆞᄅᆞ샤ᄃᆡ 크다 問호미여'<1:21a>를 참고하면, amban kai fonjin은 '크도다 물음이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2. 근대 문법서의 첨사 서술

만주어의 첨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이들을 분류한 연구들의 첨사에 대한 서술은 각 연구자의 언어 기술 관습에 영향을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인다. Захаров(1879), Пашков(1963), Аврорин(2000) 등의 러시아 연구자들은 첨사를 '소사(частица: 이기웅 2011: 157)'[28]로 보았고,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季永海 外(1986) 등의 중국 연구자들은 첨사가 서법 또는 양태를 드러낸다고 보아 이를 '어기사(语气词)'로 서술하였다.[29] 上原久(1960), 津曲敏郎(2001),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등의 일본 연구자들은 만주어의 첨사가 일본어의 종결 어미와 비슷하다고 보아 종조사(終助詞)라는 용어로 이들 어휘를 가리켰다.

2.2.1. 형태 및 통사에 따른 분류

만주어 첨사를 형태 또는 통사에 따라 분류한 문법서로는 Захаров(1879), 上原久(1960), 津曲敏郎(2001)가 있다. Захаров(1879: 321-322)는 첨사 분류에서 활용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해당 연구의 만주어 첨사 분류는 아래와 같다.[30]

(20) Захаров(1879: 321-322)의 첨사 분류
가. 음절(Слоги): на, нэ, но, я, кай, ни
나. 부사(Наречие): ину
다. 단어(Слова): дабала, вацзиха

---

28) 러시아학에서 다루는 '소사'도 지금까지 다루었던 'particles'과 그 정의가 다르지 않다. 다음을 참고하라: "...(Russischen) Partikeln erfüllen also keine grammatischen und keine semantischen Funktionen." (Song 2014: 174)

29) 진준화(2019: 224-227)에 따르면 중국어의 '어기' 개념은 서법과 양태가 무분별하게 혼용되어 있다.

30) 러시아의 만주어 문법서는 대개 러시아어로 서술되었고, 이들은 러시아어의 기본 표기 문자인 키릴 문자로 만주어를 기록하였다. 본고에서는 키릴 문자로 작성된 만주어 전사는 별도의 로마자 변환 없이 저자들이 작성한 형태를 그대로 제시한다. 러시아의 만주어 연구에서 사용된 로마자 변환은 성백인(1977: 190-191)을 참고하라.

라. 현재시제형(Настоящее): сэрэнгэ, (ниэ)
마. 현재 부동사(Настоящее деепричастие): сэмэ (< сэмби)

Захаров(1879: 321-322)의 분류 체계에서 첨사들은 크게 음절(Слоги), 부사(Наречие), 단어(Слова), 현재시제형(Настоящее: 일차적인 의미는 '현재')[31], 현재 부동사(Настоящее деепричастие)로 구분된다. 그의 첨사 분류 방식은 의미 중심이 아닌 형태 중심이기 때문에 기능에 대한 서술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Пашков(1963), Аврорин(2000) 등 후대에 이루어진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의의 또한 가진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과는 달리 'ину(inu)'가 부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 上原久(1960)는 만주어 문어 중에서도 <滿洲實錄>의 만주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만주어의 첨사를 크게 준동사, 종미사, 종조사로 구별하고 있다(21).[32]

(21) 上原久(1960: 418-426, 1960: 451-459)의 첨사 분류
가. 준동사: akū, bi, waka
나. 종미사: inu, ayoo, aise
다. 종조사: kai, dere, nikai, ni

해당 연구는 실제 문헌에서의 만주어 첨사 분포를 치밀하게 확인하였고 akū와 bi를 첨사가 아닌 일종의 동사로 보았다는 점에서 타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上原久(1960)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류 체계는 첨사들 사이의 위계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종미사'라는, 정체가 불분명한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上原久(1960: 423-426)의 '종미사'는 분포나 역할로 보았을 때 '종조사'와 차이가 없다.

津曲敏郎(2001)는 '후치사(後置詞)'라는 용어로 모든 만주어 첨사를 기

31) '현재시제형'으로 기술된 단어인 сэрэнгэ(serengge)는 명사화된 동사이다.
32) 준동사(準動詞)는 자립적으로 문두에 나타날 수 없지만 술어로는 사용될 수 있는 단어를 가리킨다(上原久 1960: 418). 종미사(終尾詞)는 항상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지만 단독으로 술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는 없으며, 술어에 부가되어 술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더하는 단어를 가리킨다(上原久 1960: 423).

술하고 있으며, 후치사를 크게 문말 후치사와 접속 후치사로 구분한다. 문말 후치사는 술어의 뒤에 등장하며, 문장에서 단정, 강조, 그리고 추측의 의미를 가진다. 접속 후치사는 선행하는 문장의 문말에 통합되어 후행하는 문장을 연결하며, 이유와 목적, 한정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22).

(22) 津曲敏郎(2001: 68-70)의 첨사 분류
가. 문말 후치사: inu, kai, dere, ni, nikai, aise, ayoo
나. 접속 후치사: (-ha) manggi, (-me) jake/saka, onggolo, baru, teisu, dahame, jakade, turgunde, jalin (de), (-ci) tetendere, gojime, canggi, teile, dabala, dari, tome, gese, adali, emgi, seme, oci, inu

津曲敏郎(2001)의 이러한 분류 방식은 dabala 등 특수한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관용 표현(3.2.3 참고)을 첨사로 분류한 기존의 연구보다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inu를 실사가 아닌 첨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nikai 등 여러 첨사가 통합되어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를 다시 하나의 첨사로 별도의 설명 없이 서술한다는 한계를 가진다.[33]

2.2.2. 의미에 따른 분류

만주어 첨사를 의미를 중심으로 분류한 연구로는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季永海 外(1986), Roth Li(2000), Gorelova(2002)가 존재한다.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326-331)은 어기사를 '온갖 종류의 감정이나 어조를 나타내는 단어'로 규정하며, 만주어의 각 어기사를 의미에 따라 감탄(感叹), 의문(疑问), 추량(猜量), 확정(确定), 응답(应答), 기원(祈願)으로 나눈다(23). 그러나 爱新觉罗乌拉熙春(1983)의 연구는 단지 첨사를 분류하였을 뿐 개별 첨사의 의미는 전혀 기술하지 않았으며, 잘못 분류한 첨사를 포함[34]하거나 만주어 문어에서 문증되지 않는 단어를 포함[35]한다는 점에

33) 津曲敏郎(2001: 68-69)는 nikai와 ni의 의미를 모두 '~인 것이다(なのだ)'로 제시해 두었다. 즉, 津曲敏郎(2001)는 ni와 nikai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지적하지 않았다.
34) 기원 어기사로 분류된 dere는 기본 의미가 추측이며, 1인칭 주어 문장에서 '-ki, -re,

서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23)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326-331)의 어기사 분류
가. 감탄 어기사: na, kai, jiya, jiye, nikai, -o, ara, ajaja, adada
나. 의문 어기사: nio, -yūn, ni, nu, na, ne
다. 추량 어기사: dere, ayoo
라. 확정 어기사: dabala
마. 응답 어기사: je
바. 기원 어기사: bai, dere

季永海 外(1986: 276-277)는 어기사는 의문(疑问), 기사긍정(祈使肯定=긍정 기원), 감탄(感叹), 시도(猜度=추측)로 나누며(24), 이들이 다른 단어와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문과 긍정 기원 어기사로 분류한 dere는 연구자가 스스로도 언급하였듯이 일차적인 기능이 의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dabala는 대응되는 한어 표현(吧, 耳, 也, 罢了)으로 보았을 때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며, bai 역시 주로 행동의 금지 또는 중지를 나타낼 때 자주 나타나므로(박은용 1969: 133)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

(24) 季永海 外(1986: 272-276)의 어기사 분류
가. 의문 어기사(疑问语气词): ni, nio, dere
나. 기사긍정 어기사(祈使肯定语气词=긍정 기원 어기사): dere, dabala, be, bai
다. 감탄 어기사(感叹词气词): kai
라. 시도 어기사(猜度词气词=추측 어기사): aise

Roth Li(2000)는 첨사를 강조(emphasis), 격려 또는 부탁(encouragement or request), 추측(conjecture), 제한(limitation), 정의(definition), 놀람(astonishment)의 의미로 분류하였다(25). 그러나 해당 분류에서는 부차적인 의미까지

-ki sembi, -mbi' 뒤에 나타날 때만 기원 또는 청유의 의미를 가진다(도정업 2021).
35) 여기에 해당하는 jiya와 jiye는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표현으로 보인다.

따져서 하나의 첨사를 여러 범주로 동시에 분류하는데, 이는 기술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 또한 실존한다고 보기 힘든 '격려/부탁의 첨사'라는 범주나 'semeo' 등 실사로 기능하다가 파생된 의미를 가지게 된 단어까지 첨사에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인다.

(25) Roth Li (2000: 365-367)의 첨사 분류(밑줄: 시버어)
가. 강조 첨사: dere, dabala, kai, na, ye
나. 격려/부탁의 첨사: bai, dere
다. 추측의 첨사: dere, aise, ba, ayoo
라. 제한의 첨사: dabala
마. 정의의 첨사: be
바. 놀람의 첨사: semeo
사. 의문 첨사: o, ni, nio, (n), na, ne, nu, mna, ye

Gorelova(2002)는 첨사를 서술(predicative), 부정(negation), 의문(interrogative), 감탄(exclamatory), 제한(restrictive)으로 분류한다(26). 그러나 Gorelova(2002)의 분류는 dabala나 wajiha 등 첨사로는 분류하기 힘든 관용적 표현이나 ume, umai처럼 부분적으로 부정 극어로 기능하는 부사를 첨사 목록에 포함한다. 또한 Gorelova(2002)는 Roth Li(2000)와 마찬가지로 시버어(Xibe Language)도 기술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만주어'의 첨사만을 다루었다고 볼 수 없다.

(26) Gorelova(2002: 368-380)의 첨사 분류(밑줄: 시버어)
가. 서술 첨사: bi, kai, inu, be, dere, dabala, wajiha
나. 부정 첨사: akū, waka, ume, unde, umai
다. 의문 첨사: na, o, ni, (n), mna
라. 감탄 첨사: na, ne, no, nu, jiya, jiye, ya
마. 제한 첨사: tome, dari

2.2.3. 의미와 형태 및 통사에 따른 분류

의미적 기준과 형태적 및 통사적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만주어의 첨사를 분류한 문법서도 존재한다. Пашков(1963: 43-44)는 첨사를 어느 품사에서도 기원을 찾을 수 없는 첨사(Первообразные)와 부사/동사/대명사로부터 파생된 첨사(Производные)로 나누며, 항상 수식하고자 하는 대상 뒤에 온다고 언급한다.[36] Аврорин(2000: 232-234)은 첨사들을 먼저 어휘 첨사(Слова-частицы)와 양태 첨사(Модальных словачастицы)로 구분한다. 그러나 Пашков(1963: 43-44)와 Аврорин(2000: 232-234) 모두 첨사를 최종적으로 분류할 땐 의미에 따라 분류하는 모습을 보인다(27, 28). 그리고 Пашков(1963)는 첨사의 의미나 해당 첨사가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 분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며, Аврорин(2000) 또한 '양태'라는 개념을 언어학적으로 불명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27) Пашков(1963: 43-44)의 첨사 분류
  가. 확언 첨사(Усилительные): ла, ни, ину, кай
  나. 선별 첨사(Выделительные[37]): ниэ, нингэ, сэрэнгэ
  다. 제한 첨사(Ограничительные): дабала
  라. 의문 첨사(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о, ни
  마. 감탄 첨사(Восклицательные): на, нэ, но, ну, я
  바. 부정 첨사(Отрицательные): аку, уньдэ, вака, умэ

(28) Аврорин(2000: 232-234)의 첨사 분류
  가. 어휘 첨사
    a) 일반 첨사: томэ, дари, нохо, эицидэ(= эимэрэчидэ), эимэрэчи

36) 예외적으로 부정 첨사인 уньдэ(unde)는 수식 대상 앞에 온다고 언급한다(Пашков 1963: 43). 하지만 실제 만주어 문어에서는 unde가 수식 대상 뒤에도 위치하므로 이는 잘못된 기술로 보인다.

37) 해당 용어를 번역할 때 러시아학에서 'Выделительные часица'로 분류하는 러시아 소사 'только'의 기능이 '선별-제한'(이기웅 2011: 159)임을 참고하였다.

(= эимэрэмэ)

b) 제한 첨사: ʒака, даму, тени, элэи, очи, сэрэŋгэ

나. 양태 첨사

a) 확언 첨사: ину, инэку, эси, элэ, jала, jалала, ʒидуʒи, [каи(= ʒиэ = ваʒиха), баи, дабала, сэчина, сэмэо]

b) 추측 첨사: аика, аинчи, дэрэ, аисэ, эичи, эмбичи, ajo(= ajo с эмби)

c) 부정 첨사: аку, вака, ундэ, умэ

d) 의문 첨사: ни, на, но/ну

e) 의문-감탄 첨사: -о, -н, -ни

그 외에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113-118, 2002: 133-135)는 첨사를 크게 무활용 동사(invariable verbs), 조동사(auxiliaries), 종조사(particles)로 나누었고, 여기서 종조사를 다시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29)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113-118, 2002: 133-135)의 첨사 분류

가. 무활용 동사: akū, bi, joo

나. 조동사: aise, aibi, inu, waka

다. 종조사

a) 의문 종조사: akūn, na (+ne, ni, nio, nu), -yūn

b) 추량 종조사: ayoo, dere

c) 단언 종조사: bai, be, dabala, dere, kai

d) 감동 종조사: jiya (+jiye), kai, na (+ni), nikai (+binikai)

2.3. Rentzsch(2012)

Rentzsch(2012)는 만주어 문어에서 양태 개념을 부호화(encode)하는 형태적 및 형태통사적 요소들을 확인한 다음, 이들의 기능적 분류를 제시한다. Rentzsch(2012)에 따르면 '양태'에 대한 기존의 접근 방식은 의미적으로 왜곡되어 있으며("strong semantic bias"), 양태를 의미 부류로 생각하

는 것보다 기능 부류로 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능 요소들은 탐색 범주를 달리하며, 문장 내에서 일정한 위계를 이루며 존재한다. 해당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을 바탕에 두고, 만주어의 양태 기능 요소가 행위구(AP: actional phrase)[38] 및 양상구(ASP: aspect phrase)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부류로 나뉠 수 있음을 보인다.

(30) Rentzsch(2012)의 양태 기능 요소 분류

가. MOD-1: 상의 탐색 범주 안에 들어오는 요소. 행위구를 제어하며, 상 및 MOD-2 표지, 다른 동사 접사(동명사, 분사, 부동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 {-ci o-, -me mute-, -me baha(na)-, -ci aca-, -ki se-}

나. MOD-2: 행위구를 제어하지만 행위구를 구성하지 않으며, 상 표지로 대체될 수 있지만 상과 통합하지 못한다. 즉, 상과 같은 계열의 양태 기능 부류이다.

→ {IMP(Ø), ume V-ra, -cina, -ki, -kini}

다. MOD-3: 문장 전체('finite aspect form/nominal predicate')를 제어한다. 상을 제어할 수 있다면 여기에 속한다.

→ {aise, ayoo, dere, kai}

그리고 Rentzsch(2012)는 이렇게 분류된 요소들의 기능을 (31)과 같은 양태적 의미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서술하며, 이들이 문장 내에서 나타나는 순서를 (32)과 같이 제시한다.

(31) Rentzsch(2012) 양태 기능 부류의 의미[39]

가. MOD-1: event modality

---

38) Rentzsch(2012)의 서술을 참고하면, 'actional phrase'는 시제까지 포함된 '시제구'(tense phrase)와 동일한 것 같다.

39) Rentzsch(2012)는 여기서 의무 양태(deontic modality)를 제외하였다고 덧붙이고, 그 이유로 알타이 제어에서 의무 양태가 명확하게 하나의 기능 부류를 이루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즉, 의무 또는 명령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두 요소 '-ci aca-'와 '-kini'는 각각 MOD-1와 MOD-2로 다른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의무 양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ini는 본래 의무 또는 명령이 아닌 화자의 소망(연규동 2012: 18)을 나타내므로 의미를 잘못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MOD-2: emotive modality(‘mood’) / future tense of prospective aspect

다. MOD-3: epistemic modality

(32) 양태 기능 부류의 등장 순서

AP < MOD-1 < ASP/MOD-2 < MOD-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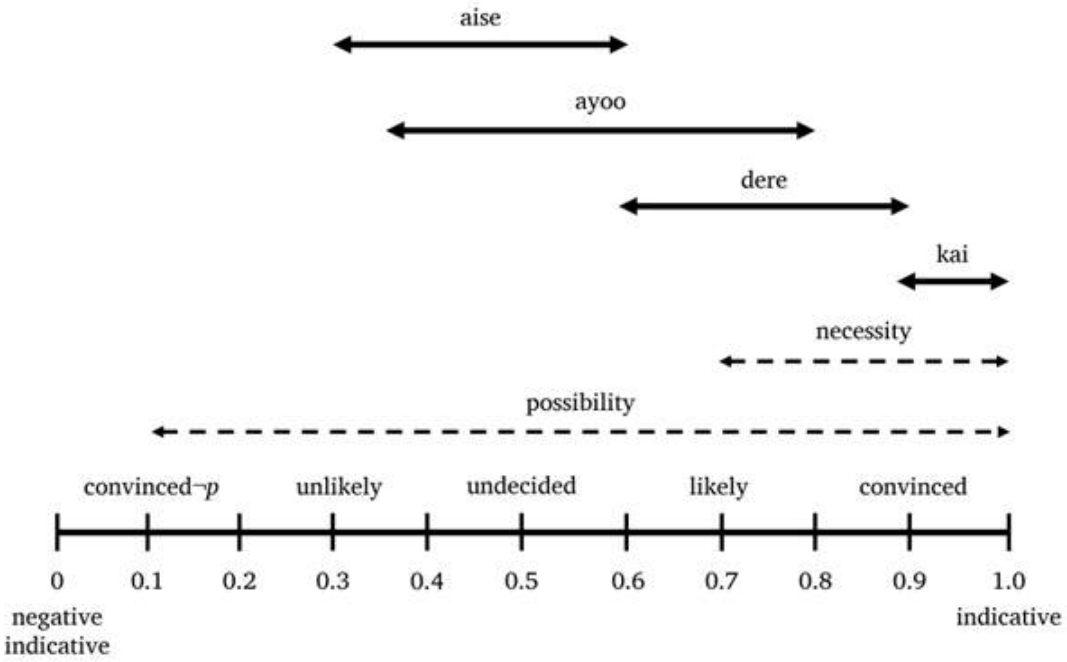

그림 1 Rentzsch(2012: 31)가 제시한 접어의 인식 양태적 강도

Rentzsch(2012)는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개념인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 요소들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그는 문장의 가장 바깥에 나타나는 요소인 MOD-3에 해당하는 요소를 ‘인식 양태 접어(epistemic modality clitics)’라고 부른다. 또한 인식 양태 영역은 필요성(necessity)과 가능성(possibility)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역설하면서, 이들을 분석하기 위해 인식성 척도(epistemic scale)를 도입한다. 여기서 이 척도의 값이 0이면 화자가 명제를 완전히 거짓이라 믿고 있는 것이며, 1이면 완전

히 참이라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각 인식 양태 접어들이 가지는 인식성 강도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한다. 즉, aise, ayoo, dere, kai 순서로 명제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Rentzsch(2012)는 그동안 기존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첨사(접어)의 인식 양태적 측면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40] 또한 의미 범주의 위계성을 활용하여 그 순서와 대응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Rentzsch(2012)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가진다. 먼저, 1인칭 원망법 어미인 '-ki', '-ki'와 동사 'se-'의 통합형인 '-ki se-'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있다. Rentzsch(2012)에 따르면 '-ki'는 MOD-2에 속하며, 양태의 인칭 참조자(personal referent)가 다양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ki se-'는 항상 고정된 관점에서 주어만을 참조자로 가진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의 해석에 따른다면 '-ki'는 1인칭 주어만 가지므로 화자 지향 양태(speaker-oriented modality)이지만, '-ki se-'는 다양한 주어를 가질 수 있으므로 주어 지향 양태(subject-oriented modality)이다. 즉, Rentzsch(2012)의 해석과는 달리 오히려 '-ki se-'가 다양한 인칭 참조자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어 지향 양태는 진정한 양태 표현이 될 수 없음(박재연 2004: 32-35)을 고려한다면, '-ki se-'는 양태 표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이다.[41]

또한 해당 연구는 양태 범주 요소를 분석할 때 통시태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첨사들의 인식성 강도를 제시할 때 계열 관계 및 통합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영어 해석이나 현대의 사전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Rentzsch(2012)는 aise는 maybe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maybe와 비슷한 인식 강도인 0.3 ~ 0.6을 가지며, dere는 probably나 certainly로 주로 번역되기 때문에 0.6 ~ 0.9의 인식 강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언어학적으로 엄밀하다고 보기 힘들며, 규범적인 서술에서 다시

40) 다만 Rentzsch(2012)는 첨사 전체를 먼저 제시하고 그 중에서 인식 양태적 의미를 보이는 요소를 추출한 것이 아니라, 양태적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 중 문장의 가장 끝에 오는 요소들이 인식 양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먼저 상정하고 있으므로 본고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1) '-ki', '-ki se-'는 '-ki dere', '-ki sembi dere'와도 연관이 있다. 자세한 논의는 본고의 4.1.2를 참고하라.

규범이 나오는 순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42)]

마지막으로, Rentzsch(2012)는 인식 양태 개념을 일률적으로 선형화하였다는 한계도 가진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들은 여러 화용적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4장 참고), 인식성 척도로는 이것을 드러낼 수 없다. 그리고 Rentzsch(2012)는 aise가 가장 약한 인식 강도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오히려 ayoo가 가장 약한 인식성 강도를 가지며 aise는 dere와 비슷한 강도의 추측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2.4. 기존 논의의 한계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한 기존 논의의 한계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명확하게 다른 품사로 기능하는 단어들을 '첨사'의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첨사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단어인 inu는 문말에만 오지 않고 명사 뒤나 서술어 위치에도 등장하며, 문말에 위치해도 그 의미가 '또한, 역시'에서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inu는 '옳다'는 뜻의 명사성 형용사로 보아야 하며, 문말의 inu는 술어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2.1 참고).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inu를 모두 첨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분류로 포함하고 있다. 첨사로 곧잘 다루어지는 dabala나 wajiha도 마찬가지로 첨사로 보기 힘들다. dabala는 속격의 대명사나 분사 어미 뒤, wajiha는 -ci 뒤에만 나타나고 둘 다 실사로도 기능하므로 이 두 표현은 연어(collocation) 내지 관용구로 보아야 한다(3.2.3 참고). be 역시 규범 문장이 분열되고 난 뒤에도 남아 있어서 첨사처럼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는 여전히 대격 조사로 기능한다(3.2.4 참고).

둘째, 기존 연구들은 첨사들 사이의 순서나 통합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첨사'로 다루어지는 단어들은 계열 관계를 이루며 위치한다(3.1

42) 다만 Rentzsch(2012)는 MOD-3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의미 확인은 자료 제공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에서 대략적인 의미만을 제시한다고 명시해 두었다.

참고). akū와 bi는 술어의 위치에 오고 항상 waka, inu, kai, dere, ayoo, aise의 앞에 온다. waka와 inu도 kai, dere, ayoo, aise의 앞에만 위치하며, ni와 전언(hearsay)으로써 증거성을 나타내는 sere 역시 kai, dere, ayoo, aise의 앞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akū와 bi, waka와 inu, 그리고 kai, dere, ayoo, aise를 동일선상에 놓고 같은 계열로 다루기는 힘들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소수의 첨사 복합체를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이러한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첨사로 다루어지는 단어의 목록이 일관성을 잃거나 각 단어의 기능이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다.

셋째, 문말에 위치하는 단어가 인식 양태 범주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첨사 분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본고에서 주로 다루는 4개의 단어인 dere, kai, ayoo, aise가 확언 또는 추측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이때 확언과 추측은 모두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에 속하는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언어 보편적으로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문법 표지는 서법 표지를 제외하면 문장의 가장 상층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음에도 (Cinque 2006) 기존 연구들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도 인식 양태는 명제에 대한 판단이므로 문장의 가장 바깥에 나타나며 술어와 독립적인 단어는 앞서 나타난 명제를 모두 수식하고, 여기에 양태적 의미를 더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만주어에서 문장의 최상단 또는 최외곽에 위치하는 단어들은 인식 양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선 만주어의 첨사에 대해 이러한 언어 보편적 사실이나 양태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넷째, 기존의 논의들은 상당수가 특정 시기와 특정 언어로 연구 대상 자료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爱新觉罗乌拉熙春(1983)와 Roth Li(2000), 季永海 外(1986)는 청나라 시기 전체의 만주어 문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Захаров(1879)는 17세기가 아닌 19세기 만주어 문어를 살펴보았다. Gorelova(2002)는 서양권 연구만을 참고하였으며, Roth Li(2000)처럼 시버어도 동시에 다루고 있다. 언어는 통시적 및 공시적으로 항상 변화하므로, 이러한 요인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

어 연구를 수행하면 일관성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이다.

즉, 기존 연구들은 ‘첨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념을 일반언어학적으로 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자료상의 문제로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에 ‘첨사’로 분류된 단어들을 다시 분류한 후, ‘인식 양태’의 계열을 이룬다고 여겨지는 단어들의 기능을 파악하여 이를 다시 명칭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서술을 위해 연구 대상을 만주어 문어로 한정할 것이다.

3.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른 만주어 첨사의 재분류

2장의 기존 논의 중 근대 문법서에서 다루었던 첨사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43)]

표 1 기존 연구의 만주어 첨사 분류

	爰.鳥. (1983)	季.外 (1986)	上原久 (1960)	津曲. (2001)	河内. (2002)	Зах. (1879)	Паш. (1963)	Авр. (2000)	Ro. (2000)	Gorlv. (2002)
aika								추측		
ainci								추측		
aise		시도	종미사	문말				추측	추측	
adada	감탄									
ajaja	감탄									
akū			준동사		무활용		부정	부정		부정
akūn					의문					
ara	감탄									
ayoo	추량		종미사	문말	추량			추측	추측	
ba									추측	
bai	기원	긍정			단언			확언	부탁	
be		긍정			단언				정의	서술
bi			준동사		무활용					서술

43) Rentzsch(2012)는 '첨사'를 종합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dere, kai, ayoo, aise만을 묶어서 이들이 인식 양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이미 추측하였기 때문에 표 1에서 다루지 않았다.

dabala	확정	긍정				단어	제한	확언	강조 제한	서술
dari										제한
dere	추량 기원	의문 긍정	종조사	문말	추량 단언			추측	추/강/부	
eici									추측	
ele									확언	
embici									추측	
esi									확언	
ineku									확언	
inu			종미사	문말			부사	확언		서술
ja								감탄		
jala									확언	
jalala									확언	
je	응답									
jiduji									확언	
jie									확언	
jiya	감탄				감동					감탄
jiye	감탄				감동					감탄
joo					무활용					
kai	감탄	감탄	종조사	문말	단언 감탄	음절	확언	확언	강조	서술
la							확언			
mna									의문	의문
-n								의문 감탄	의문	의문

na										의문 감탄
ne	의문				의문	음절	감탄		의문	의문 감탄
ni	의문	의문	종조사	문말	의문 감탄	음절	확언 의문	의문	의문	의문
nikai	감탄		종조사	문말	감동					
ningge							배출			
nio	의문	의문			의문	현재	배출		의문	
no						음절	감탄	의문		감탄
nu	의문				의문	음절	감탄	의문	의문	감탄
-o	감탄						의문	의문 감탄	의문	의문
secina								확언		
seme						부동사				
semeo								확언	놀람	
seren-gge						현재	배출			
tome										제한
umai										부정
ume							부정	부정		부정
unde							부정	부정		부정
waka			준동사				부정	부정		부정
wajiha						단어	확언	확언		서술
ya										감탄
yun	의문				의문					

이 중에서 최소 3회 이상 언급된 단어를 나열하면 (33)와 같다.

(33) aise, akū. ayoo, bai, be, bi, dabala, dere, inu, jiya, jiye, kai, ne, ni, nikai, nio, nu, -o, ume, unde, waka, wajiha

그러나 (33)에는 품사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나열하면 (34)과 같다.

(34) akū, bi, be, dabala, inu, -o, unde, waka, wajiha

본 장에서는 (33)에 나열된 단어 중 계열 관계 및 그 순서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들을 확인하겠다(3.1). 또한 (34)의 단어들이 어떠한 이유로 첨사로 간주될 수 없는지를 기술하겠다(3.2).[44)]

3.1. 계열 관계와 인식 양태 첨사

(33)의 단어 중 일부는 자신들 사이에서 뚜렷한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와 계열 관계(paradigmatic relation)를 보인다. 먼저 불규칙 동사인 akū와 bi, 명사성 형용사인 inu와 waka는 모두 술어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akū, bi, waka, inu}를 하나의 계열로 묶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의외성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추측되는 ni와 전언(hearsay) 표지인 sere(도정업 2019a)[45)]가 위치할 수 있다. 이 둘은 함께 등장하는 용례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항상 {akū, bi, waka, inu} 다음과 후술할 {dere, kai, ayoo, aise} 이전에 나타나므로 {sere, ni}는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룬

44) 이외에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단어로는 bai, jiya, jiye, ne, nikai, nio, nu, ume가 있다. 여기서 jiya와 jiye는 愛新觉罗乌拉熙春(1983: 326-327)의 분석을 참조하면 '강조'에 해당한다. nikai와 nio는 ni와 kai, ni와 -o의 통합형이다. ume는 부정 명령문을 만드는 부사이다. bai, ne, nu는 용례의 수가 부족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45) sere가 전언 표지가 아닌 인용 동사로 기능하면 항상 인용절 바깥에 위치해야 하므로 제시한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는 후술한 {kai, dere, ayoo, aise}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고 볼 수 있다. 만주어 문어 자료에서도 ‘akū sere’와 ‘akū ni’는 등장하는 반면, ‘*sere akū’와 ‘*ni akū’는 확인할 수 없다(35).

(35) {akū, bi, waka, inu}와 {sere, ni} 사이의 통합 관계

가. {akū, bi, waka, inu} sere[46)]

a) ere hoton agu i kesi de ufaraha **akū sere**. <滿三18:43b-44a>
‘이 성은 공의 은혜 덕분에 잃지 않았다고 한다. (多虧公保守此城)’

b) weilere ilan minggan, hūdai niyalma juwe minggan **bi sere**, <天聰40:14b>
‘일하는 사람이 3000명, 장사하는 사람이 2000명 있다고 한다.’

나. {akū, bi, waka, inu} ni[47)]

a) erebe bodoci mini gisun tašan **akū ni** sefi. <滿三9:112a>
‘이를 고려한다면 나의 말은 거짓이 없지 않나 해서 (以此論之不虛言也)’

b) gemu taibu tura ojoro erdemungge amban **waka ni**kai <滿三4:162a>
‘모두 동량(栋梁)이 되는 덕망 있는 대인이 아니도다. (皆非柱石之才也)’

c) tsootsoo ambula injefi hendume, si kemuni ejehe **bi ni**kai. <滿三4:138b>
‘조조가 크게 웃으면서 말하니, “너도 계속 기억하고 있었구나.” (操大笑曰你原來也記得)’

d) jalan i niyalma gemu mengde be jalingga koimali seme heduhengge yala **inu ni**kai. <滿三6:140b>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맹덕(=조조)이 간사하다 하여 말하는 것이 과연 그러하구나. (世人皆言孟德奸雄今果然也)’

{sere, ni} 다음에는 kai가 위치할 수 있다. kai는 ‘sere kai’와 ‘ni kai(또

46) ‘waka sere’와 ‘inu sere’는 문증되지 않지만, waka와 inu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순서는 아닐 것이다.

47) akū를 제외하면 모든 예문에서 ni가 kai와의 통합 형태 ‘nikai’로 나온다. 즉, ni가 waka, inu, bi와 단독으로 공기하는 예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는 nikai)'의 형태로 {sere, ni}와 함께 나타난다(36). 그러나 '*kai sere'와 '*kai ni'는 등장하지 않는다. 한편 dere, aise, ayoo는 {sere, ni}와 공기하지 않지만, {akū, bi, waka, inu}와의 통합 관계에서 그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dere, aise, ayoo는 문증되지 않는 'inu ayoo' 및 'inu aise'를 제외하면 항상 {akū, bi, waka, inu}에 후행하며, 이 순서가 바뀐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37).

(36) {sere, ni}와 kai

가. tsootsoo hendume, bi donjici si dergi u gurun i tsanmu hafan **sere kai**. <滿三10:25b>
'조조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네가 동오(東吳)의 참모 관리라 하더라." (操曰吾聞汝是東吳叅謀)'

나. bi gemu waha seme gūniha, suwe inu ujihe **nikai**. <天聰41:25b>
'나는 모두 죽였겠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또한 살렸구나.'

(37) {akū, bi, waka, inu}와 dere, ayoo, aise

가. {akū, bi, waka, inu} dere

a) musede sakda, nimeku noho, dogo, doholon seme hihan **akū dere**, <天命18:1b-2a>
'우리에게 노인, 병자, 맹인, 절름발이라고 하여 귀하지는 않겠지만,'

b) emu niyalmai gūniha anggala, suweni geren i gūnihangge inu uru **bi dere**, <天命3:1b>
'한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는 너희 여럿이 생각한 것이 더욱 옳을 것이다.'

c) gingguleme kimcici, simbe gūnime asarahabi sere gisun, ainci simbe gūnime ujihebi sere gisun **inu dere**. <天命9:10b頭註>
'신중하게 살펴보니 「simbe gūnime asarahabi」라는 말은 아마도 「당신을 생각하며 살렸다」는 말일 것이다.'

d) si duka be tašarame dosika, ainci ere boo **waka dere**. <滿金21:3b>[48)]
'당신은 문을 잘못 들었소, 아마도 이 집이 아니리라.'

나. {akū, bi, waka, inu} ayoo

a) aikabade beye de sain **akū** **ayoo**. <滿三3:91b>

‘행여나 몸에 좋지 않을까 염려되오. (恐於身不利)’

b) cengui ama juse jiyangjiyūn i dere be haldabašarangge ehe mujilen **bi** **ayoo**. <滿三4:97b>

‘진규(陳珪) 부자가 장군을 향해 아부하는 것이 나쁜 마음이 있을까 염려되오. (陳珪父子面談將軍恐欲害之)’

c) abalarangge tondo doro **waka** **ayoo**, <滿三4:144b>

‘몰이사냥이 바른 도리가 아닐까 염려된다. (田獵恐非正道乎)’

다. {akū, bi, waka, inu} aise

a) siyanšeng geli olung **waka** **aise**. <滿三8:47b>

‘선생은 또한 와룡(臥龍)이 아니겠군요. (先生又非卧龍耶)’

b) enenggi ajige deote ainci ginggulere mujilen **akū** **aise**. <滿金13:11b>

‘오늘 작은 동생들이 아마도 신중한 마음이 없네.’

c) age liguijiyei enenggi ubade **bi** **aise**. <滿金61:25b>

‘형님 이계저(李桂姐)가 오늘 이곳에 있겠습니다.’[49]

마지막으로, kai는 dere, ayoo, aise와의 분포를 확인하였을 때 이들과 하나의 계열 {dere, kai, ayoo, aise}로 함께 묶을 수 있다. {dere, kai, ayoo, aise}는 모두 동사 어미의 뒤에 등장하며, 이들이 공기하는 용례는 확인되지 않는다.[50] 또한 전술하였듯이 {dere, kai, ayoo, aise}는 {akū, bi, waka, inu} 뒤에 나타나며, 동일 계열에 속하는 kai가 {sere, ni} 뒤에 등장

48) ‘waka dere’는 본고의 주 문헌인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에 등장하지 않지만, <滿文金瓶梅>와 <滿文詩經>에서 각각 4건과 1건이 검색된다.

49) ‘akū aise’와 ‘bi aise’는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에 등장하지 않지만, <滿文金瓶梅>에서 각각 2건과 3건이 검색된다.

50) ‘dere kai’ 조합이 <滿文金瓶梅>에 두 건 등장하지만, 이들 용례에서의 dere는 ‘체면’이라는 뜻의 실사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첨사로서의 dere kai 조합이 나왔다고 볼 수 없다: si ton be arafi, menggun udu yan uhufi bene, inu emu dulin karu **dere** **kai**. <滿金35:32a> ‘너 수를 적고 은 몇 냥을 봉해서 보내라. [그러면] 모름지기 절반으로 화답함이 **체면이리라**.’, uttu oci, erei boihoji dobori akū boode gergen serakū ombi sere anggala, boo bahafi tehe sehede, inu ahūn i **dere** **kai**. <滿金56:7a> ‘그렇다면, 이 주인이 밤낮으로 없는 집에는 재잘거림이 없다 하기 때문에, 능히 머무는 것이 또한 형의 **체면이리라**.’

하므로 {dere, kai, ayoo, aise}도 {sere, ni}에 후행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33)의 단어들 사이의 계열 및 순서는 그림 2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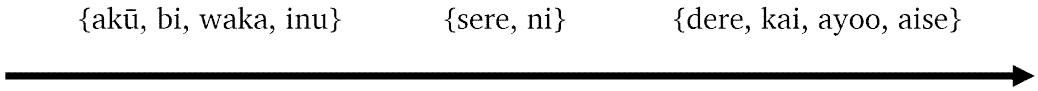

그림 2 기존 연구에서 '첨사'로 기술된 단어들의 계열 및 그 순서

이 중에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dere, kai, ayoo, aise} 계열이다. {dere, kai, ayoo, aise}는 명제를 수식할 수 있는 위치에 오며, 4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식 양태를 나타낸다. 한편 {sere, ni}도 정동사 어미 뒤에 나타나지만, 이들은 도정업(2019a, 2019b)에 따르면 인식 양태보다 증거성(evidentiality)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증거성은 본고의 논지 및 탐구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다.[51]

3.2. 첨사로 볼 수 없는 단어

3.2.1. inu, waka

inu와 waka는 명사 또는 명사성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다.

1) inu

inu를 언급하는 문법서들은 모두 실사로서의 inu와 첨사로서의 inu가 다르다고 기술한다. 上原久(1960)는 첨사로서의 inu가 용언의 위치가 아닌, 용언을 수식하는 위치에 나타난다고 서술한다. 上原久(1960)는 첨사

51) 한편 {kai, dere, ayoo, aise}는 판정 의문문을 형성하는 의문 표지 '-o'와도 공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kai, dere, ayoo, aise}와 -o가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룬다고 보기는 힘든데, {kai, dere, ayoo, aise}와 -o는 관여하는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kai, dere, ayoo, aise}는 인식 양태와 연관되어 있는 반면 -o는 '의문문'이라는 문장 유형을 나타낸다.

로서의 inu가 항상 이전에 오는 체언 뒤에서 해당 체언을 강조하고 모두 술어의 자리에 위치하며, 이 용도로 사용되는 inu가 항상 문말에 위치한다고 주장한다. 박은용(1969: 136) 역시 inu가 문말에서 계사적인 기능을 가지며, 그 뜻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임에 틀림없다, ...이 분명하다, ...이 옳다')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박은용(1969: 136)은 부사로서의 inu가 문말에서 계사적인 기능을 가지는 inu와 별개의 형태소임을 언급한다.

그러나 두 inu는 별개의 형태소로 보기 어렵다. inu는 어말에서 첨사처럼 사용되어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 <漢淸文鑑>에는 inu의 해석이 '올타'로 제시되어 있는데, inu가 어말에서 사용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inu가 계사적인 용법을 가진다는 해석 역시 납득하기 힘든데, 만주어에는 명시적인 계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inu를 계사로 본 것은 <御製增訂淸文鑑>의 서술에 이끌린 해석일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御製增訂淸文鑑>에서 inu를 풀이하면서 한어 대역어로 '是'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38). 是는 상고한어 말기부터 한어에서 也를 대체하는 계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메이광 2017: 82-186), 기존 연구들도 inu의 대역어로서의 是를 계사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是는 <漢淸文鑑>이 제시한 것처럼 '옳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이 뜻이 inu의 의미에 더욱 부합한다.

(38) inu에 대한 청문감 계열 서적의 서술

가. <御製淸文監>, <御製增訂淸文鑑>: niyalmai uru gisun be urušere mudan. geli yargiyan sere gūnin. luwen ioi bithede. kungdzy i henduhengge. yung ni gisun inu sehebi.
'사람들의 옳은 말을 옳다고 여기는 표현이다. 또한 진실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논어>에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옹(雍)의 말이 옳다"[52]고 말하셨었다.'

나. <漢淸文鑑>: '올타' (是)

52) 子曰 雍之言이 然ᄒᆞ다 <論語栗谷先生諺解2:2a>

또한 inu는 문말 이외의 위치에도 등장하며, 문장 가운데에서 형용사로 나올 때와 어말에 등장할 때에 그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39). 그리고 inu는 거의 모든 경우에 명사형 단어 뒤에 나오며, 술어의 위치에서 사용될 때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inu는 문장 내에서 등장하는 위치에 상관없이 명사성 형용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53]

(39) inu의 용례

가. 문장 가운데에서 명사로 기능하는 inu

a) han i takūraha elcin **inu** waka be yargiyalahakū, tašarame hū bu de dosinara jakade, <天聰12:5b-6a>

'한께서 파견한 그 사신이 **옳고** 그름을 명백하게 하지 않고 오해하여 호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b) kungming **inu** waka be alime hendume <滿三9:77b>

'공명(=제갈량)이 **시**비를 받아들여 말하기를, (孔明亦謝罪曰)'

나. 문장 가운데에서 형용사로 기능하는 inu

a) nenehe han i korsocun **inu** wajiha, jai ume gisurere, <天聰11:2b>

'선한(先汗)의 원한**도** 끝났다. 다시 말하지 마라.'

b) bi **inu** ududu juwan jergi afaha. <滿三7:16b>

'나 **또한** 수십 번을 싸웠다. (吾自歷戰數十塲)'

다. 술어의 위치에 나오는 inu

a) mini dolo daci tondo be elerakū banjiha, juse suwembe ejekini seme hendurengge ere **inu**. <天命4:28a>

'나의 마음은 원래부터 올곧음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왔다. 아들들 너희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라**.'

b) dahara be alime gaijarakū serengge **inu**. <滿三1:41a>

'따르는 것을 받아서 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와 같다**. (不容寇降是矣)'

---

53) 한편 이와 관련하여 Захаров(1879)는 기존 논의들 중에서 유일하게 inu를 부사('Наречие')로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Захаров(1879) 또한 어말에 오는 inu를 첨사로 분류한 뒤 그 안에서 부사로 기술하였으므로, inu를 완전하게 부사로 여겼다고 보기 힘들다.

2) waka

河内良弘·清瀨義三郎則府(2002)에 따르면 inu와 waka는 같은 자리에 나타나고 의미만 정반대이며, 둘 다 조동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inu와 waka의 성질을 불완전하게 설명한다. 먼저, 1)에서 확인하였듯이 inu는 명사성 형용사로 기능한다. waka 또한 문장 가운데에서 명사로도 쓰이며, 어말에 등장해 첨사처럼 사용되어도 본래의 뜻인 '거짓, 그름'의 의미를 가진다(40). 따라서 첨사로서의 waka는 명사성 형용사로서의 waka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54]

(40) waka의 용례

가. 문장 가운데에서 명사 및 형용사로 사용된 waka

a) han de mini **waka** be alime hengkileki seme takūraha manggi, <天聰40:6b>

'"한(汗)에게 내 **잘못**을 고하며 절하겠다"며 사람을 보낸 후에,'

b) eshen tsootsoo i ehe **waka** be safi alaha seme. <滿三1:28b>

'숙부께서 조조의 과**실**을 알아내서 알려 달라고 하여 (後叔父但言操過失)'

나. 술어의 위치에 나오는 waka

a) be han i gisun be jurceme giran be sohangge **waka**, <崇德1:12a>

'우리가 한(汗)의 말을 어기고 시신을 뿌린 것은 **아닙니다**.'

b) abkai fejergi serengge emu niyalma i abkai fejergi **waka**. <滿三2:71a>

'천하라 함은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天下者非一人之天下)'

54) waka는 'inu waka' 조합으로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하므로 명사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waka는 명사를 수식할 때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며, 속격 표지 '-i'가 붙어서 'waka i NP' 형태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waka가 완전한 명사라면 'waka i NP' 형태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waka는 명사성 형용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2.2. bi, akū[55)]

bi와 akū는 의미가 정반대인 불규칙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1) bi

上原久(1960)는 bi를 준동사로 분류하였고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무활용 동사로 보았는데, 두 연구 모두 동사 bi가 활용형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Gorelova(2002)는 bi를 계사로 분류하였는데, bi가 어말에 위치할 때 명사 뒤에 나오며 주어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bi를 계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bi의 문법적 지위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bi 뒤에는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의문 표지 '-o'가 올 수 있다(41). 그런데 -o는 술어 뒤에 오므로 bi도 명사 또는 술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bi는 항상 명사구 또는 여처격 격표지 de 뒤에 자리하며, 동시에 bi가 포함된 문장은 동치 구문을 이루지 않는다.

(41) bi의 용례

가. 일반적인 bi

a) musei ishun emu sirdan iselere we **bi**, <天聰58:2b>

'우리를 향해 화살 한 발이라도 저항하는 것이 누가 **있겠습니까**.'

b) te liyoodung de cooha ududu tumen **bi**. <滿三7:97a>

'지금 요동(遼東)에 군사가 수만이 있다. (今遼東軍兵有數萬)'

나. bi + -o

a) ereci farhūn niyalma geli **bio**, <天聰59:19b>

'이보다 무지한 사람이 또 **있는가**.'

b) wesihun ahūn gašan de **bio**. <滿三8:55a>

'위의 형은 마을에 **계신가**. (令兄在庄上否)'

따라서 bi는 계사가 아닌, '있다'는 의미의 동사로 봄이 가장 합당하

55) 여기서 말하는 bi와 akū는 동사 어미로 사용되는 '-bi'와 '-akū'가 아님을 밝힌다.

다. bi가 ‘bisire’ 등 일부 불규칙한 활용형을 취한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bi는 만주어의 불규칙 동사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56]

2) akū

akū에 품사적 지위를 부여한 연구들은 대개 akū를 준동사 또는 무활용 동사로 보았다. 上原久(1960)는 akū를 준동사로 보았다.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akū를 무활용동사로 보았으며, 그 이유로 akū가 동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akū가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모습도 등장한다. akū에는 각각 부동사 어미 ‘-ci’, 과거 시제 분사 어미 ‘-hA’, 의문 어미 ‘-n’이 결합하여 일부 활용형이 생성될 수 있다(42).[57]

(42) akū의 활용형

가. akūci

a) juse **akūci**, mini beye ai gisun, <天命3:3a>

‘아들들이 **없으면** 나 혼자가 무슨 말인가’

b) cenghiyang ni bithe **akūci**, si ukame genembi kai. <滿三6:44a>

‘승상의 글이 **없다면**, 너는 도망가야 하리라. (若無憑文卽系逃竄)’

나. akūha

a) tere cooha de ulkun iogi, eljige iogi **akūha**. <天聰20:20b>

‘그 적병에게 Ulkun 유격과 Eljige 유격이 **죽었다**.’

b) terei deo sioik'ang jakan **akūha**. <滿三8:11a>

‘그의 동생인 서강(徐康)이 최근에 **죽었다**. (見其兄弟徐康已亡)’

다. akūn

a) dulimbai amban, han i duin jušen be gosime ujire de, tere jaka **akūn**, <天聰2:6a>

‘중앙의 큰 황제의 네 주션을 인애하며 보살피는 데 그런 물품이 **없겠는가**.’

b) nememe niyalma de kadalaburengge gicuke **akūn**. <滿三3:28b>

---

56) 한편 bi의 활용형처럼 보이는 ‘bimbi’라는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bi와 bimbi의 의미 차이는 불명확하다. 이 둘의 차이는 본고의 관심사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겠다.

57) 다만 (42나)에서도 볼 수 있듯이, akū에 -hA가 결합한 ‘akūha’는 ‘지금 없다’, 즉 ‘죽었다’라는 의미로만 사용되며, 일종의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사람들에게 다스려지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가?** (反受制於人不亦鄙乎)’

또한 akū가 그 외의 형태로 활용해야 하는 경우 동사 ‘o-’ 등과 공기하여 우언적 구성을 이룰 수 있다(43).

(43) akū의 다른 활용형

가. akū o-

a) fu jeo ba i niyalma, mini emgi banjire mujilen **akū ofi**, <天命 54:18b>

‘복주 지역의 사람은 나와 함께 살아갈 마음이 **없어서**’

b) gurun de emu inenggi han **akū oci** ojorakū. <滿三1:85a>

‘나라에 하루라도 황제가 **없으면** 안 됩니다. (國不可一日無君)’

나. akū bi-

a) fusihūn gurun i buyeme donjirengge, muse juwe gurun daci hanci adame tefi, baili bisire dabala, korocun **akū bihe**, <天聰 13:2a>

‘저희[卑下] 나라가 바라고 듣는 것은, 우리 두 나라가 처음부터 가까이 이웃하여 지내어서, 온정이 있을 따름이고, 앙심[koro:怨恨]은 **없습니다**.’

b) cananggi ajige jui nimeme cooha dame genehekū ofi, dolo hihan **akū bihe**. <滿三5:92b>

‘일전에 작은 아들이 병든 군대를 도와서 가지 않았기에 속으로 **헛되다 하였다**. (昨爲小兒抱患有失救援其心怏怏不安)’

위의 용례와 더불어 akū가 동사 뒤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akū는 첨사가 아니라 존재부정의 의미를 가지는 불규칙 동사로 보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다. 즉, bi와 같은 위치에 나타나지만 의미는 반대인 단어가 된다.

3.2.3. dabala, unde, wajiha

dabala, unde 그리고 wajiha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다른 문법 형태소와 결합한 관용 표현인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structure)을 이룬다. 즉, 이들은 완성된 문장 뒤에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표현 뒤에만 결합하므로 후치사로 볼 수 있다.

1) dabala 및 unde

dabala의 분포에 제약이 있음은 고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清文助語虛字>는 dabala가 -rA 뒤에 와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清文虛字指南編>은 dabala가 -rA에 더해 -hA의 뒤, 그리고 -rA와 -hA의 부정형인 -rAkū 및 -hAkū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고 묘사한다(44).

(44) dabala에 대한 고문헌의 서술

가. <清文助語虛字>: dabala罷咧字。乃不過是這樣罷咧決定之詞。在句尾用。此上必用 ra, re, ro 等字。如有不用者。乃係成語。
'「罷咧」에 해당하는 글자다. 기껏해서 이러한 양상을 끝내겠다고 결정하는 뜻의 말이다. 문말에서 사용된다. ra, re, ro 등의 말이 앞에 따라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만약 [ra, re, ro 등의 글자와] 함께 쓰이지 않는다면, 이미 이루어진 말(=발화된 말)에 매인다.'

나. <清文虛字指南編>: dabala 本是罷字意 又作耳字也使得 或然又作而已矣ha re kū尾接處多
'dabala는「罷」의 의미에 해당한다. 또는 이미 시켜 얻은 의미에 사용한다. 그리고 ha, re, kū 접미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dabala는 속격 접사 i와 통합한 명사 뒤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dabala는 문장 가운데에 나타난다. 또한 dabala가 문장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도 문말에서 사용될 때와 동일하게 '뿐, 따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45). 즉, dabala는 항상 명사와 속격 표지의 통합체 또는

분사 뒤에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한국어의 우언적 구성 표현 '-ㄹ 뿐'에 상응한다. 따라서 dabala를 명사성 형용사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45) dabala의 용례

가. 속격의 대명사 또는 i 뒤

a) meni fucihi ere ilan šajin be werifi **urgun i dabala**, ushacun akū, <天聰2:11a>

'우리 부처님은 이 세 법을 가지어서 **열락만 있을 뿐** 번뇌가 없으며,'

b) te abkai fejergi de baturu manggangge damu **jiyangjiyūn i dabala** jai akū, <滿三2:67a>

'지금 천하에 용맹한 영웅은 다만 **장군뿐이고** 또 없다. (方今天下別無英雄惟有將軍耳)'

나. -rA 뒤

a) ereci amasi, jušen, nikan i boode acan tere, jeku be anggala tolome acan **jetere dabala**, <天命39:14b>

'지금 이후로 여진인은 한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곡물을 식구를 세어 함께 **먹기만 할 뿐**,'

b) te mimbe booi aha de buki seci bi **bucere dabala**. <滿三1:85a>

'이제 나를 가노(家奴)에게 준다 하면 나는 **죽을 뿐이다**. (今欲與家奴妾寧死不辱)'

다. -hA 뒤

a) akūci dain de wabuha, akūci sini han **waha dabala**, <天聰28:8b>

'아니면 전쟁에서 죽임당하였거나, 아니면 너의 황제가 **죽였을 뿐이다**.'

b) bi donjici bata de sujara de irgen be elhe obumbi **sehe dabala**, <滿三13:92b>

'내 듣기로는 적에게 항거해야 백성을 평안히 해 줄 수 **있을 뿐이다**. (不然吾聞拒敵以安民)'

unde 역시 dabala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淸文虛字指南編>은 unde가 dabala와 마찬가지로 -rA 뒤에 나온다는 사실을 언급한다(46가).

실제로 <滿洲實錄>에 등장하는 6건의 unde와 <滿文三國志>에 나오는 189건의 unde는 모두 분사 어미 -rA 뒤에 등장한다.

(46) unde에 대한 고문헌에서의 서술
가. <清文虛字指南編>: onggolo 未先 unde 尙未 ra re ro 字上連着.
'onggolo[未先]와 unde[尙未]는 ra, re, ro 뒤에 연접한다'
나. <漢清文鑑>: yaya isinjire tucinjire onggolo, yaya wajihakūngge.
'모두 도달하여 드러나기 이전, 모두 끝나지 않은 것.'

따라서 unde는 -rA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성 형용사 또는 후치사로 볼 수 있다. 또한 dabala와 마찬가지로 문말뿐만 아니라 문장 중간에 나타날 수 있다(47).

(47) 문장 가운데에 나오는 unde
가. yaya weilengge niyalma jurgan de habšafi, jurgan i wang, aliha ambasa weile tuhebume beideme **wajire unde** de, <崇德12:2b>
'모든 죄인이 부(部)에 호소하는데 부의 왕과 승정(承政)들이 죄명을 내려 심판이 **끝나기 전**에'
나. toolu i gūnin hono **toktoro unde** de taka arga be gisureci ojorakū. <滿三9:100a>
'토로(討虜) 장군의 생각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 잠시 계책을 말할 수 없다. (討虜尙未心穩不可以決策也)'

2) wajiha

wajiha는 함께 첨사로 간주되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그 기원이 비교적 명확하다. wajiha는 분석하면 'waji + -hA'이고, 이 중에서 'waji-'는 '끝나다(<漢清文鑑>에는 「다 뭇다」)'라는 뜻을 가지는 일반 동사이다. '-hA'는 과거 시제 분사 어미다. 즉, wajiha는 '끝났다'라는 의미이고, wajiha가 첨사로 사용되었다는 문장에서 wajiha를 '끝났다'라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해도 내용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첨사처럼 간주되는 wajiha는 의미만으로는 동사 wajiha와 구별하기 어렵다.

첨사가 아닌 wajiha와 첨사로 보이는 wajiha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문장 내 위치이다. <清文助語虛字>는 wajiha가 항상 -ci 뒤에 나타나야 한다고 언급하며(48), (49가)의 용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wajiha는 '-면 되었다'로 해석된다. 반대로 -ci에 후행하지 않는 wajiha(49나)는 본래 의미인 '끝났다'로 해석된다. 그러나 (49가)의 wajiha 또한 본래의 의미인 '끝났다'로 해석하여도 무방한 것처럼 보인다.

(48) wajiha에 대한 <清文助語虛字>의 서술
完了字。罷了字。在句尾用。此上必用 ci 字照應。實解完畢了。
'完了, 罷了의 의미에 해당하며, 구의 꼬리에서 사용된다. 이 단어는 반드시 ci 뒤에 조응해서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해석한다.'

(49) wajiha의 용례
가. turi use **isici wajiha**, isirakūci, afiya turi be tūfi gaikini. <天命 39:11a>
'콩의 씨앗이 **충분하면 되었다**. 충분하지 않으면 청대콩을 탈곡하여 가지기 바란다.'
나. suwe gemu uju fusi, tuttu oci, dule **wajiha kai**, <天命21:20a>
'너희는 모두 머리를 깎으라. 그렇게 되면 진정 **끝난 것이다**.'

3.2.4. be

기존 연구들은 문말에서 사용되는 be가 대격의 be와 다른 지위를 가졌다고 이해하였다. 문말의 be는 강조(assertation) 또는 정의(definition)의 첨사로 간주되였으며, 때로는 계사로도 여겨졌다. 季永海 外(1986),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Gorelova(2002)는 어말의 be를 각각 긍정 어기사, 강조 종조사, 서술 첨사로 분류하였다. 특히 Gorelova (2002)는 be가 단정(predicativitiy)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Roth Li(2000)는 be가 정의를 나타내는 첨사라고 기술하였다. 季永海 外(1986)는 be가 한어

에서 계사로 기능하던 也에 대응된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be는 문말에서도 여전히 대격 표지로 기능한다고 보아야 한다(강민하 2022). 이는 특수한 구조의 문장에서만 기존 연구에서 첨사로 여겼던 be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be가 정의 또는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장의 선행절은 모두 serengge로 표지되는데(50가), 이는 만주어의 전형적인 분열문 형식이다(Gorelova 2006, Gorelova & Wu 2019). 이때 serengge를 정동사로 바꾸고 선행절을 be 뒤로 옮기면 be가 대격 표지로 해석되는 문장이 만들어지는데(50나), 해당 문장은 만주어에 자주 등장하는, 평범한 규범형 문장(canonical sentence)이다.

(50) 첨사로 보이는 be의 용례(강민하(2022: 108)에서 재인용)
가. 어말에 be가 등장하는 용례
a) ceni beye serengge, cahar **be**. <天命65:7b>
'저들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하르(Cahar)**를** 말한다.'
b) dayabu serengge, wara **be**. <天命66:7b>
'dayabu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을** 말한다.'
나. (가)에서 예측되는 규범형 문장
a) cahar **be** ceni beye sembi.
b) wara **be** dayabu sembi.

이때 (50나)의 be는 전형적인 대격 표지이므로, (50가)의 be가 대격 표지 이외의 기능을 하는 첨사로 이해되려면 추가 변화를 겪어야 한다. 하지만 (50가)에서 분열화 이외의 변화 요소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50가)의 be도 대격 표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58]

어말의 be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는 다른 격조사는 첨사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be를 첨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이다. (51가)처럼 어말의 be 뒤에는 추가적으로 kai가 올 수 있는데, 어말의 de 뒤에도 역

58) 김양진·신상현(2017: 189)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해당 be를 계사로 해석하는 것은 만주어의 생략 구문에 대한 몰이해임을 지적하며, 단지 한어의 번역이 '也'로 나타날 뿐임을 덧붙인다. 그러나 강민하(2022)에 따르면 be가 어말에 위치하는 구문은 생략 구문이 아니라 분열문이다.

시 kai가 나올 수 있다(51나). 그러나 (51나)의 de는 해당 위치에 나타나더라도 여전히 여처격 표지로 이해된다. 따라서 be kai의 be도 de처럼 본래의 격표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1) be kai와 de kai(강민하(2022: 113)에서 재인용)

가. de kai

a) mimbe uji serengge, amala banjire geren irgen i jalin **de kai**, <天命19:14b>

'나를 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살아갈 여러 백성들 때문이다.'

b) han, nikan i baru acaki serengge, anahūnjame bederceme kenehunjere turgun **de kai**, <天聰58:7b>

'한(汗)이 명을 향해서 화친하자고 하는 것은 양보하고 물러나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나. be kai

a) baban sini jekini serengge muhaliyan be, muhaliyan i jekini serengge baban **be kai**, <天命4:2b>

'Baban, 네가 먹이고자 하는 이는 Muhaliyan이고, Muhaliyan이 먹이고자 하는 이는 Baban인 것이다.'

b) tanggū aniya i sidende urunakū enduringge niyalma tucimbi serengge, musei han **be kai**, <崇德30:15b>

'500년 사이에 반드시 성스러운 사람이 나온다고 한 것은, 우리의 한(汗)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의미

본 장에서는 문말에서 동일한 계열을 형성하는 네 단어 {dere, kai, ayoo, aise}가 인식 양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함을 보이며, 이들의 개별 분포와 의미를 분석한다. dere는 인식 양태적 추측을 나타내며, 중립적인 의미의 추측을 드러낸다. 또한 의지의 표현 뒤에서 의미 강도를 약화시켜 공손성을 표현한다. kai는 인식 양태적 확신을 드러내며, 대화문에 대부분 나타나는 담화 표지로 기능한다. ayoo는 인식 양태적 의구를 드러내며, 근거 없는 막연한 짐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나타낸다. aise는 인식 양태적 추정의 표현이며, 항상 앞뒤로 인식 판단의 근거를 동반하는 모습을 보인다.

4.1. dere

대부분의 기존 논의는 dere에 추측의 의미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청문감류 서적, <清文助語虛字> 및 <同文類解> 語錄解는 dere가 추측 및 의심의 표현이며, ‘probably(아마도)’에 해당하는 부사 ainci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上原久(1960), 津曲敏郎(2001),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 Аврорин(2000), Roth Li(2000), Gorelova (2002) 등의 문법서도 모두 dere가 가진 추측의 의미를 언급한다.

한편 dere에 다른 의미도 있다고 기술하는 연구도 존재하였다. 季永海外(1986)는 dere의 기능으로 의문과 기원을 추가하였다. Roth Li(2000)는 dere의 기본 의미는 추측이지만 격려 및 부탁과 강조의 의미도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上原久(1960),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dere가 강조 또는 단언의 의미도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爱新觉罗乌拉熙春(1983)는 dere에 기원의 의미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dere는 일차적인 의미는 인식 양태적 추측이므로, 의문·격려

및 부탁·강조 및 단언·기원은 dere의 본질적인 의미로 볼 수 없다. 기원·격려·부탁으로 서술된 dere는 1인칭 복수 주어를 가지는 '-ki'와 1인칭 주어의 '-rA' 및 '-mbi'와 공기할 때만 나타나며, 이때에도 dere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4.1.2 참고). 의문과 강조 및 단언 역시 dere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4.1.3 참고).

4.1.1. dere의 의미: 인식 양태적 추측(Speculative)

dere의 의미는 인식 양태적 추측(Speculative)이다. <清文助語虛字>는 dere가 'probably(아마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ainci와 함께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이는 dere와 ainci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dere는 <滿文老檔> 天命에서 324회 등장한다. 이 중 143회에 달하는 문장에서 ainci와 공기하고(52), 이는 마찬가지로 ainci와 공기하는 kai, aise의 공기 횟수보다 독보적으로 많다. 따라서 dere는 인식 양태 첨사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미의 추측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52) ainci와 공기하는 dere

가. gingguleme kimcici, ere abka sabdame joboci yebe dere sere gisun, **ainci** abka sabdame agara oci, hono yebe, tuwa daha de, ai funcembi sere gūnin **dere**. <天命8:27a頭註>
'신중하게 살펴보니 이 「abka sabdame joboci yebe dere」라는 말은 **아마도** 「하늘이 새어 비가 오면 오히려 낫다. 불이 나면 무엇이 남겠느냐」라는 뜻**일 것이다**.'

나. ere emu meyen i fe dangse be gingguleme baicaci, nomhon, jaisa, gūwalca, ilan niyalmai gebu be araha bime, duin niyalma sehebi, amala geli toboi be weile araha babe ejehebi, **ainci** toboi i gebu arara be melebuhe **dere**. <天命20:18b頭註>
'이 한 단락의 『滿文原檔』을 신중하게 조사하니, Nomhon, Jaisa, Gūwalca 세 사람의 이름을 썼는데, 네 사람이라고 했다. 나중에 또 Toboi가 죄지은 바를 적었다. **아마도** Toboi의 이름을 누락한

것 같다.'

dere는 kai와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dere는 일부 형태소 뒤에서 의미 강도를 약화시켜 공손성을 추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kai는 설득의 상황에서의 근거 제시라는 화용적 기능을 보인다(4.1.2 참고). 또한 dere는 발화의 사용역(register)을 고려하지 않고 두루 등장하지만, kai는 dere와는 달리 항상 대화문에서만 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4.2.3 참고).

4.1.2. 청유 및 의지로 기술된 dere

첨사로서의 dere는 특정 분포에서 추측 이외의 의미를 지니는 것처럼 보인다(도정업 2021: 212-213).

(53) 추측 이외의 의미를 지는 것처럼 보이는 dere
(도정업(2021: 212-213)에서 재인용)
가. mujilen onco tondo be tuwame **tukiyeki dere** <天命4:23a>
'마음이 넓고 올곧은 것을 보아 **등용하겠다**.'
나. suwe bahanarakūci, minde aifini ainu alanjihakū, bi **daifurabure dere** <天聰40:7b>
'너희가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일찍 어찌 알리지 않았는가. 내가 **치료하게 할 것이다**.'
다. bi uhereme doroi jalin de **kiceki sembi dere** <天聰52:12b>
'나는 모두 도리를 위해 **힘쓰고자 한다**.'
라. hoton i niyalma afaki, gese haha kai, mende gala bikai, afafi gese **bucembi dere** seme hendume dakarakū oho manggi, <天命12:3a>
'성의 사람들이 "싸우자. 똑같은 사내이다. 우리에게 팔이 있다. 싸우고 같이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며 항복하지 않자'

(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경우 dere는 1인칭 주어를 가지며, a)

‘-ki dere’[59] b) ‘-rA dere’ c) ‘-ki sembi dere’ d) ‘-mbi dere’ 뒤에서 나타난다. 도정업(2021)은 이때의 dere는 청유나 의지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추측의 표현이 1인칭 주어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1인칭 주어와 함께 나타나는 추측의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재해석되는, 소위 ‘1인칭 효과(Aikhenvald 2004: 219)’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분포에서 dere 자체가 청유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53)의 ‘-ki’와 ‘-rA’가 이미 의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ki는 1인칭 주어의 의지 또는 소망을 나타내며(연규동 2012: 7-12) -rA는 1인칭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므로(박상철 2016: 57), 이들은 dere와는 독립적인 의지/의도 표현이다. 그리고 dere가 가설적인 명제를 다룬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ki dere’와 ‘-rA dere’는 각각 가설적 상황에서의 화자의 의지 및 의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滿文三國志>의 ‘-ki dere’와 ‘-rA dere’는 각각 15회, 3회 등장하는데, 이들은 모두 가설적 상황에서 화자 자신의 의지 및 의도를 표현한다.

(54) <滿文三國志>의 ‘-ki dere’ 및 ‘-rA dere’ 예문

가. aikabade cangan de jici uthai weihun **jafaki dere**. <滿三19:100a>
‘만약에 장안(長安)에 가면 [조예를] 바로 산 채로 **잡읍시다**. (若得來長安就而擒之)’

나. sini erdemu be tuwaci bahanarakū jaka akū. si tsootsoo de dahara mujilen bici, bi gaitai **acabure dere**. <滿三10:38b>
‘당신의 재능을 보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바로 **만나게 할 것입니다**. (據公之才何所不宜如背降曹幹當引進)’

(54)는 -ki dere와 -rA dere가 가정적 상황에서의 의지와 의도를 표현함을 보여준다. (54가)는 제갈량의 북벌 과정에서 마속(馬謖)이 제안하고 있는 장면으로, -ki dere를 통해 “아직 장안에 가지 못하였지만 만약 간

59) ‘-ki dere’는 1인칭 ‘복수’ 주어를 가져야 청유로 해석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모두 ‘1인칭 주어’로 묶어서 서술하겠다.

다면 목표물인 조예(曹叡)를 사로잡을 것이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4나)는 조조가 파견한 간첩이었던 장간(蔣幹)이 유비 휘하의 모사인 방통(龐統)을 회유하는 장면으로, -rA를 통해 "만약 당신이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상황이라면 내가 조조에게 기꺼이 데려가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두 상황 모두 "장안에 도달함"과 "조조에게 항복함"이 실제로 확인되거나 벌어진 일이 아니므로, 가설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mbi dere'는 그 해석에 추측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 '-mbi dere'에서 '-mbi'는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데 빈번하게 사용되고,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건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일어날 것임이 덜 확실한 사건을 기술할 때는 '-mbi' 뒤에 dere를 붙일 수 있다(박상철 2017: 112-113). 따라서 '-mbi dere'는 1인칭 주어를 가지더라도 추측과 의지 둘 모두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5) <滿文三國志>에 등장하는 -mbi dere의 예문

가. bi generakūci ojorakū, muse jai bahafi **acambi dere**. <滿三3:19b>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또 능히 **만날 것이다**. (不敢不去容圖再見)'

나. bi, jang fei emgi okdofi **afambi dere**. <滿三5:28a>
'저는 [조공이 온다면] 장비와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吾與張飛迎之)'

종합하자면, dere는 1인칭 주어에서 '-ki, -rA, -ki sembi, -mbi'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추측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1인칭 주어와 공기하면서 의지 및 의도의 표현을 가지는 문장에 나타나는 dere는 공손(politeness)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ki dere'나 '-rA dere'가 나타나는 상황은 모두 권유의 의미를 가지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다(56). 또한 공손 표현에서 추측 또는 불확실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는 실험(Bonnefon & Villejoubert 2006) 또는 실제 언어 현상(신현규 2021)에서도 확인된다. 즉, dere는 -ki와 -rA가 표현하는 의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러한 현상이 공손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56) <滿文三國志>에 등장하는 -ki/-rA dere의 화자와 청자 분석

가. -ki dere

a) amaga jobolon be lashalame tsaiyang be amcabufi **waki dere**. <滿三 6:29b>

'나중의 후환을 없애기 위해 채양(蔡陽)으로 하여금 뒤쫓게 해 [관우를] **죽입시다**.'

: 정욱(程昱, 조조의 모사) → 조조

b) aga muke de cooha ambula joboho. ing **guriki dere**. <滿三22: 11b-12a>

'빗물에 군대가 크게 수고로웠습니다. 진영을 **옮깁시다**.'

: 수련(讐連, 사마의의 우도독) → 사마의

나. -rA dere

a) sinde lashlame muterakū weile bici minde ainu fonjirakū. bi sini emgi **hebešere dere**. <滿三3:142>

'당신(주군)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저에게 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당신과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 주치(朱治, 손책의 아버지인 손견의 휘하 장수) → 손책

b) tsoogung membe holtome daha seme takūrahangge, juwe gung de dahara mujilen bici bi **acabure dere**. <滿三10:33b>

'조공[=조조]는 우리를 속이고 항복하라 하여 보냈습니다. 두 공에게 항복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함께할 것입니다**.'

: 채화(蔡和, 조조의 첩자이자 주유에게 거짓 항복한 자) → 감녕

4.1.3. 강조 및 의문으로 기술된 dere

上原久(1960), Roth Li(2000),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dere가 강조의 의미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dere가 실제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존 연구에서 강조의 dere로 제시한 예문(57)에서의 dere는 여전히 추측으로 해석할 수 있다.

(57) 기존 연구에서 강조의 dere로 제시한 용례[60)]

가. 上原久(1960: 452)

a) musei beye sula oci,「dain be **etembi dere**.」<滿實2:157>
'우리의 몸이 비게 되면「전쟁에서 **이길 것이다**.」(我兵輕便。「必獲全勝矣。」'

b) bi ere dain be buyeme deribuhengge waka,「amba ujungga nadan **koro dere**,」<滿實4:155>
'저는 이 군대를 원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크고 주요한 일곱 가지 **원한일 것입니다**.」(此兵吾非樂擧。「首因七大恨。」)'

c)「daiming be dailaci, jurgan i **dailambidere**,」musei hecen weilere niyalma de ulebure jalin de, ihan ganame dailaci acarakū. <滿實6:163>
'대명(大明)을 치려면 의로써 **칠 것이다**. 우리의 성을 만드는 사람에게 먹이기 위해 소를 데려와 전쟁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 (「征明國。當以大義擧之。」如爲犒築城之夫。而掠之。最不可也。)'

나. Roth Li(2000: 365)

a) tuttu oci ere uthai nure i **turgun dere**!
'그렇다면 이건 필경 술 **때문일 것이다**!'

(57가)는 모두 <滿洲實錄>에 수록된 예문이다. 이 중 a)의 dere는 조건문의 '조건절-귀결절' 구성에서 귀결절에 나타나므로 추측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b)의 dere는 선행절의 내용과 맥락을 바탕으로 추측하면 본뜻이 '제가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단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칠대한[七大恨]일 것입니다'가 되는데, 하늘에 바치는 축문(祝文)에 작성된 내용이므로 dere를 통해 공손성을 표현한 것으로 짐작된다. c)의 dere는 1인칭 주어를 가지고 있고 -mbi 뒤에 나타나므로 4.1.2에서 논의한 dere와 같다. Roth Li(2000: 365)의 예문인 (57나)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역시 '조건절-귀결절' 구성에서 귀결절에 dere가 나타나므로 이 dere는 추측으

60) 上原久(1960)와 Roth Li(2000)는 출전 또는 원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上原久(1960)가 제시한 부분과 그에 해당하는 한국어 및 한문은「」로 감쌌다. Roth Li(2000)가 제시한 예문은 문헌에서 찾을 수 없었다.

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리고 季永海 外(1986)가 제시한 의문으로서의 dere 역시 의역으로 인한 오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58).

(58) 기존 연구에서 의문의 dere로 제시한 용례(季永海 外 1986: 274)
tere turgun be **sarkū dere**. <清文啓蒙>
'그 이유를 **모를 것이다**. (未知其故耶?)'

季永海 外(1986: 274)는 dere를 '耶'로 해석하는데, 해당 어기사는 중국어에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반문의 의미를 가지는 의문 어기사로도 기능한다(김지희 2016: 357). 그렇다면 dere를 의문 어기사로도 본 季永海 外(1986: 274)의 해석은 dere를 번역하는 데 사용되었던 耶의 의미에 이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58)의 dere는 여전히 추측으로 해석할 수 있다.

4.2. kai

대부분의 기존 논의는 kai가 강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kai는 dere와 같이 명제를 수식하여 명제에 대한 화자의 인식 양태적 태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문감류 서적은 kai가 '필히'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urunakū와 공기하는 예문을 제시하였고, 이는 kai가 강한 추측의 의미일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현대의 연구 역시 kai가 단순한 강조는 아니라고 서술하였다. 爱新觉罗乌拉熙春(1983), 季永海 外(1986),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kai에 감탄의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Пашков(1963), Аврорин(2000), 성백인(1970: 287)은 kai가 단언 또는 확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박상철(2017: 107-108)은 dere 및 kai가 인식 양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kai는 확실성(certainty)을 나타내는 첨사라고 덧붙였다. 도정업(2019b)은 kai가 확실성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문 첨사 'ni'와

통합한 형태인 ‘nikai’가 의문문에 나타나지 못한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kai가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며, kai와 분포가 겹치는 dere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4.1.1에서는 먼저 kai가 등장하는 맥락을 확인한 다음, 4.1.2에서는 kai와 dere가 가지는 분포의 특징을 비교해서 정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4.1.3에서는 kai가 나타내는 의미를 특정한다.

4.2.1. kai의 의미: 인식 양태적 확신(Deductive)

kai의 의미는 인식 양태적 확신(Deductive)이며, 등장하는 문맥을 검토하면 그 기능을 ‘의견 관철을 위한 근거 제시’로 파악할 수 있다. 일단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 kai가 나타나는 문맥은 아래 예문 (59)가 보여주는 것처럼 확신, 확인, 의지, 감탄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59) kai가 사용되는 맥락

가. 확신

a) wan lii han be ehe seme hendu, suweni nikan membe baha de, ere gese ujimbio, **wambi kai**, <天命37:8a>

‘만력제를 나쁘다고 하라. 너희 명이 우리를 정복했다면 이처럼 보살피겠느냐. **죽일 것이다**.’

b) mimbe hūdun jio, emu inenggi goidaci, nikan emu inenggi **belhembi kai** sere gisun inu mujangga, <天聰28:15a-b>

‘나를 「속히 오십시오. 하루 지체되면 명나라가 하루를 **준비할 것입니다**.」라는 말도 옳다.’

c) lioi bu uju uncehen be karmame muterakū urunakū **gidabumbi kai**. <滿三2:105b>

‘여포가 머리와 꼬리를 지킬 수 없으니 필경 **패배할 것이다**. (呂布首尾救應不迭必然大敗)’

나. 확인

a) liyoodung ni hecen be afara de, mini coohai niyalma inu kejine

bucehe kai, <天命20:12b-13a>

'요동성을 공격할 때, 나의 병사 역시 많이 **죽었다**.'

b) han, beise i afabuha bade buceci songgoro, feye bahaci tuwanara oci, dergi niyalma fejergi be gosire hairandara **jurgan kai**. <天聰39:18b>

'한(汗)과 버일러들이 맡긴 곳에서 죽으면 울고, 상처를 입으면 문안 가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義)이다**.'

c) mini bodogon be tsootsoo be sakini **sehengge kai**. <滿三5:59a>

'나의 계획은 조조를 알게 하라 **한 것이었다**. (使操知我有識也)'

다. 의지

a) alin ci wasifi dahame jiderakūci, **wambi kai**. <天命40:2b>

'산에서 내려와서 항복하러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b) suweni uttu wafi jimbi sere anggala, tun i yaya hafasa, bai uthai tun i niyalma be gaifi dahaci, bi inu terei gajiha irgen be gemu tede salibufi **ujimbi kai**, <天聰27:19a>

'너희가 이렇게 죽이고 오겠다고 하는 대신에 섬의 모든 관원들이 그냥 그대로 섬의 사람을 이끌고 항복하면, 나도 그가 데려온 백성을 모두 그에게 거느리게 하여 **보살필 것이다**.'

c) lioi bu hendume, bi sinde kimun **akū kai**. <滿三3:126b>

'여포가 말하였다. "저는 당신(=유비)에게 원한이 **없을 것입니다**." (布曰我與爾無讐)'

(59가)는 kai가 확신의 맥락에서 사용된 예시이며, 이러한 kai의 용례가 전체 kai의 용례의 절반을 차지한다. (59나)는 강조의 맥락에서 사용된 kai의 예문이며,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이는 동시에 대부분 과거형 동사를 동반한다. (59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kai의 예문이다. 이들은 1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며 정동사 어미 -mbi 뒤에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가지는데, 이는 도정업(2021)이 서술하였던 의지의 용법으로서의 dere와 비슷하다.

종합하자면, (59)에 제시된 용례를 통해 kai가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강

한 확신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kai의 화용적인 용법과도 연결된다. (59나b)에서 kai가 수식하는 문장인 “dergi niyalma fejergi be gosire hairandara jurgan(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이다)”는 일반적인 상식인 예의범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화자와 청자 모두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여기서의 kai는 잉여적이다. 그럼에도 kai를 사용하여 상식을 확신의 형태로 발화한다는 사실은 kai에 화용적 용법이 존재함을 내포한다.

(60) (59나b)의 앞부분

mini gisun be jurceme dosika tulai be ainu tuwanambi, bucehe seme tere be tuwanaci acara giyan mujanggao, si ujulaha amban wakao, tuwanara anggala, genefi tooci acambi kai, jurgan akū bade bucere feye bahara be ainu tuwanambi, **[han, beise i afabuha bade buceci songgoro, feye bahaci tuwanara oci, dergi niyalma fejergi be gosire hairandara jurgan kai]** seme becehe, asidarhan nakcu, <天聰39:18a-b>
“내 말을 어기고 진입한 Tulai를 왜 병문안 가는가. 죽었다 하여도 그를 문상하러 가면 합당한 도리이겠는가. 너는 우두머리 대신이 아닌가. 병문안 가는 대신에, 가서 꾸짖어야 마땅할 것이다. 의(義)가 없는 터에 죽고 상처를 입는 것을 왜 문안 가는가. **[한(汗)과 버일러들이 맡긴 곳에서 죽으면 울고, 상처를 입으면 문안 가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義)이다]**”라고 (한이 Yangguri 어푸와 Gūnggadai를) 책망하였다.

해당 문장의 앞을 포함해 전체 발화 흐름을 확인해보면 한(汗)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병문안을 간 어푸(efu)들을 책망하고 있는데(60), 병문안을 가면 안 되는 이유에 해당하는 일반 상식(밑줄)을 kai가 수식하고 있다. (59나b) 이외의 예문 또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61).

(61) kai에 들어있는 근거 제시의 기능[61]

가. wan lii han be ehe seme hendu, suweni nikan membe baha de, ere gese ujimbio, **wambi kai**, <天命37:8a>

'만력제를 나쁘다고 하라. 너희 명이 우리를 정복했다면 이처럼 보살피겠느냐. **죽일 것이다**.'

: 바로 뒤에 "bi wahakū ujifi icihiyarangge ere inu(나는 이처럼 죽이지 않고 보살펴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한(汗)이 말하고 있으므로, "[한(汗)인 나 말고] 만력제를 나쁘다고 하라"고 요청하는 근거로 kai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liyoodung ni hecen be afara de, mini coohai niyalma inu kejine **bucehe kai**, <天命20:12b-13a>

'요동성을 공격할 때, 나의 병사 역시 많이 **죽었다**.'

: 이어지는 문장은 "tuttu buceme afafi baha liyoodung ni hecen i niyalma be, hono wahakū gemu ujifi, fe kemuni banjimbi kai(그렇게 죽으면서 공격하여 얻은 요동성의 사람을 오히려 죽이지 않고 모두 살려줘서 이전처럼 살고 있다)"이고, 다음에 "suwe ume olhoro(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로 명령이 이어진다. 즉, 화자가 자신의 병사를 희생한 대가를 묻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근거로 kai가 사용되었다.

다. alin ci wasifi dahame jiderakūci, **wambi kai**. <天命40:2b>

'산에서 내려와서 항복하러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

: 이 문단은 "alin holode bisire nikan suwe hūdun alin ci wasifi usin tari, boo arafi te(산과 골짜기에 있는 한인들 너희는 속히 산에서 내려와서 밭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살라)"로 시작한다. 즉, 한인들을 산에서 소개하기 위해 협박(=불응할 경우 미래의 불이익 제시)하는 용도로 kai가 사용되었다.

kai의 앞뒤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의 유형 또한 kai의 화용적 기능을 짐작하게 한다(표 2).

61)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59)의 각 분류(확신, 강조, 의지)에서 예문을 하나씩만 가져와 분석하였다.

표 2 <滿文老檔> 天命에서 kai와 dere의 앞뒤로 등장하는 문장의 유형별 빈도와 비율

	IMP	-ki	-cina	-kini
kai (총 632회)	248 (39.2%)	28 (4.4%)	28 (4.4%)	9 (1.4%)
dere (총 431회)	23 (5.3%)	4 (0.9%)	- (0%)	4 (0.9%)

<滿文老檔> 天命에 등장하는 dere의 앞뒤에는 명령문이 23회, 원망법 어미 '-ki, -cina, -kini'를 포함한 문장이 8회 등장한다. 반면 kai의 앞뒤에는 명령문이 248회, 원망법 어미 문장이 65회 등장한다. 명령문과 원망법이 화자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대표적인 문장 형식임을 고려한다면, 명령문/원망법 문장을 동반하는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dere를 앞서는 kai가 명령문/원망법과 관련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은 바로 (60)와 (61)에서 확인한 것처럼, 화자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로 삼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종합하면, kai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때 그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이는 일반적인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dere와는 구별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ni와 kai가 통합한 형태인 'nikai'는 의외성(mirativity)을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도정업 2019b).

(62) nikai의 용례

가. mao jiyanggiyūn simbe bi genggiyen seme gūniha bihe, si abkai erin be sarkū, **farhūn nikai**, <天命71:9b-10a>

'모 장군 너를 내가 명석하다고 생각하였는데, 너는 하늘의 때를 모른다. **미혹하도다**.'

나. yasa de sabure niyalma mimbe waki serede, suwe ainu ekisaka tuwame iliha, mini suwembe gosihangge tusa **akū nikai**. <天聰40:6a>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할 때, 너희는 왜 가만히

보며 서 있는가. 내가 너희를 아낀 것이 소용이 **없구나**.'

다. hoton i tule enduri gese gabtara mangga niyalma **binikai**.<滿三 3:167b>

'성 바깥에 귀신처럼 화살을 쏘는 철인들이 **있구나**. (城外有人如此神箭)'

4.2.2. kai와 dere의 공통점

3.1에서 확인하였듯이, kai와 dere는 ayoo 및 aise와 함께 문장의 가장 바깥쪽에서 하나의 계열을 이루며, 인용 동사인 'se-' 앞을 제외하면 모두 평서문 정동사 어미 '-mbi, -hAbi, -mbihe, -hA bihe' 뒤 또는 명사 뒤에 나타난다(63).[62] 즉, kai와 dere는 명제를 수식하는 위치에 있으며, 해당 명제에 인식 양태적 의미를 더한다고 볼 수 있다.

(63) 정동사 어미 뒤에 나타나는 kai와 dere

가. kai

a) -mbi: tulergi gurun be gemu hirhame wacihiyafi amba hecen i teile funcehe manggi, adarame banjimbi, gurun eitereci **wajimbi kai** <天命2:14b>

'바깥 나라를 모두 나누어 멸하고 나서 큰 성만 홀로 남으면 어떻게 살겠는가. 나라가 모두 **끝날 것이다**.'

b) -hAbi: abka, muse be gosifi emu doro **buhebi kai**, <天命11:1a>

'하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한 정권을 **주었노라**.'

c) -mbihe: si mini niyalma bihe bici tuttu **hendumbihe kai**, <天命50:13a>

'네가 나의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d) -hA bihe: baire niyalma ume baire, gūsa doome buci, baici, weile seme erdeni sini galai bithe **araha bihe kai**, <天命51:2a-2b>

62) 다만 (63나d)에서 볼 수 있듯이 -hA bihe dere 구성은 17세기 만주어 문어에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구성은 3건만이 18세기에 작성된 <滿文金瓶梅>에 등장하고, (63나d)는 그 중 하나를 가져온 것이다.

‘「청하는 사람은 청탁하지 말라. 구사를 넘어서 주어도 청해도 죄이다」라고 Erdeni 네 손으로 글을 **적었었다**.’

e) 명사: sain tubihe, sain jaka banjire oci, tere enteheme **tusa kai**, <天命20:13b>

‘좋은 과일,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것은 영원히 **이익일 것이다**.’

나. dere

a) -mbi: suweni uttu dailame isinjiha bade, bi inu suwende geneci **ombi dere**, <天命20:2a-2b>

‘너희가 이처럼 정벌하러 도달해 왔으므로 나 역시 너희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b) -hAbi: hahai erdemu be gung be tuwafi, teisu acabume suwembe tese de **buhebi dere**, tere be suwende salibuhabio, <天命51:20b>

‘남자의 덕과 공을 보아서 각각 맞추어서 너희를 그들에게 **준 것이지**, 그들을 너희에게 거느리라고 준 것이겠는가.’

c) -mbihe: ere jaisai beile be, ini beye i waka be gūniha bici, han **wambihe dere**, <天命13:4b>

‘이 Jaisai 버일러를, 그 자신의 잘못을 생각했다면 한(汗)이 **죽였을 것입니다**.’

d) -hA bihe: daci umai sarin be sahakū bicibe, wa be inu majige **donjiha bihe dere**. <滿金46:7b>

‘본래 축제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냄새는 역시 **느꼈을 것이다**.’

e) 명사: erei jalin de, be aiseme gisurere, han i **ciha dere** <天命13:5a>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汗)의 **뜻일 것입니다**.’

또한 kai는 dere처럼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ainci와 공기한다. 4.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dere의 절반 이상은 ainci를 동반한다. kai 역시 dere보다 드물지만 ainci와 공기한다. ainci를 동반하는 kai는 <滿文老檔>에서 2회, <滿文三國志>에서 5회 등장한다(64). 이는 kai가 dere처럼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가짐을 알려주며, kai와 dere가 확신성 정도에서 공유하는 지점이 있음을 내포한다.

(64) ainci를 동반하는 kai

가. abka gosici muse **ainci bahambi kai**, <天命4:10b>
'하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니 우리가 **아마도 이길 것이다**.'

나. **ainci** tsoo cenghiyang mimbe sindafi **unggirakūngge kai**. <滿三6:24b>
'**아마도** 조 승상[조조]이 나를 놓아 **보내지 않으리라**. (此是曹丞相不容我去之意也)'

다만 kai는 ainci보다 urunakū('반드시')나 uthai('곧')와 공기하는 빈도가 더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부사 urunakū는 필연성을 가지므로 확신의 인식 양태를 가지는 kai와 공기할 수 있다. uthai는 urunakū보다 필연성이 떨어지지만(박상철 2016: 47) 계기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역시 kai와 공기할 수 있을 것이다.

(65) urunakū 및 uthai와 공기하는 kai

가. sain de sain karu, ehe de ehe karu, **urunakū isimbi kai**, <天命15:7a>
'선(善)에는 좋은 보답이, 악(惡)에는 나쁜 응보가 **반드시 미칠 것이다**.'

나. cenghiyang ni tucike gisun **uthai fafun kai** <滿三4:77b>
'승상에게서 난 말이 곧 **명령이리라**. (丞相之言令也)'

4.2.3. kai와 dere의 차이점

dere와 kai는 사용역(register: Biber 1999)에서 차이를 보인다. dere는 사용역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지만 kai는 대부분 대화문에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kai는 현장성을 요구하는 담화표지로 기능한다고도 볼 수도 있다.

이는 dere와 달리 kai가 설득의 근거를 제시하는 화용적 기능으로 인해 청자의 실존 여부가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화문이 아닌 지문에서 kai가 등장하는 예가 극히 일부분 존재하지만, 이러한 예문들도 일종의 현장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66).

(66) 대화문이 아닌 위치에서 등장하는 kai의 예시

kooli be ejeme bithe araha erdeni baksi hendume, … (중략) … genggiyen han i tehe hecen be efulembi, gurun be gemu wacihiyambi seme cooha tucikengge, abkai gamara ici be tuwarakū, ini gurun be amban, ini cooha be geren seme, ambula geren de ertufi, abka de eljere gese cooha **tucikebi kai**, <天命9:1a-b>

'역사를 기억하여 글을 쓴 어르더니 박시가 말하기를 … (중략) … 겅기연 한(汗)이 있는 성을 파괴하고, 나라를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군사를 낸 것은 하늘이 이끄는 쪽을 보지 않고 자신의 나라가 크고, 자신의 군사가 많다고 크고 많음에 기대어 하늘에 저항하듯이 **출병한 것이다**.'

(66)은 대화문이 아닌 문장에 등장하는 kai의 예시인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작성자인 어르더니 박시(Erdeni Baksi)의 사견에 해당한다. 해당 문장은 혼잣말처럼 보이지만 <朝鮮王朝實錄>에서 자주 쓰이는 인용구인 "사관은 논한다[史官所記]"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으므로, 후대의 독자를 현장의 청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ere와 kai의 차이는 abka '하늘', han '한(汗)' 등 화자 및 청자가 함부로 의중을 재단할 수 없는 절대자와 함께 사용될 때에도 드러난다.

(67) 절대자가 나타날 때 사용되는 kai와 dere

가. kai

a) abkai joriha tere amba ganio be we jailabumbi, **abkai ciha kai**, <天命41:9b>

'하늘이 정한 이 큰 재앙을 누가 피하겠는가. **하늘의 뜻이다**.'

b) **han** tukiyefi ujici, han be gingguleme gūnirakū oihori gūnici,

efujere wasindarangge **tere kai**, <天命58:12b>

'**한(汗)**이 등용하여 보살피는데도, 한(汗)을 공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파멸하고 몰락하는 것이 **그것이다**.'

c) fusihūlaha seme anggai gisun de fusihūn ombio, fusihūn **abkai ciha kai**, <天聰2:19a>

'능멸한다고 해서 입의 말로 천해지느냐. 천해지고 고귀해지는 것은 다 **하늘의 뜻이다**.'

d) turgun akū irgen be wara gaijarangge, **abka** be **fudaraka kai**, <天聰3:14b>

'이유 없이 백성을 죽이고 잡아가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e) suntse ambula jili banjifi hendume, aga serengge **abka na** i toktobuha **ton kai**. <滿三6:142b-143a>

'손책이 크게 노하여 말하길, "비[雨]라 하는 것은 **천하**가 정한 **셈이라**." (策大怒曰雨乃天地之定數)'

f) jabšan de muse de dahame jidere niyalma bisirengge, tere ini hefeli dorgi jobolon, **abka** musede **aisilarangge kai**. <滿三10:48b-49a>

'다행히 우리에게 귀순할 사람이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요충 지대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는] **하늘이** 우리를 **도우는 것이리라**. (幸有歸順之人爲彼心腹之患, 此天助吾也)'

나. dere

a) selei hitha jursu ilarsu be hafu genere poo miyoocan de, fulgiyan yali niyereme niyalma goifi dahakūngge, **abkai enduri** dalifi **dahakū dere**, <天命6:26b>

'쇠로 된 두 겹 세 겹의 미늘을 관통하는 포와 총에 맨살을 드러낸 갑옷 없는 사람이 맞고도 다치지 않은 것은 **하늘의 신**이 막아서 **다치지 않은 것이다**.'

b) erei jalin de, be aiseme gisurere, **han** i **ciha dere**. <天命13:5a>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汗)**의 **뜻일 것입니다**.'

c) ama han bederehe manggi, lama si jidere jakade, **abkai** acakini

sere **erin dere** seme, doro acara bithe arafi, meni hafasa be emgi adabufi unggihe, <天聰3:3a>
'선황이 승하(昇遐)하자 라마 당신이 (조문을) 왔으므로 **하늘이** 화전하라고 하는 **때라고** 여겨 화전하는 글을 써서 우리의 관인들을 함께 임명하여 보냈다.'
d) genehe de ferguwecuke babe **han** de tucibufi gūnin de acaha de, amala **tukiyembi dere**, <天聰11:10a>
'갔을 때 기이한 것을 **한**에게 내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드시면 나중에 **등용하실 것입니다**.'
e) si abkai šu be jafafi fusihūn niyalma de fonjici urunakū **abka i giyan** be **sambi dere**. <滿三18:14a>
'네가 하늘의 일을 찾아 아랫사람에게 묻는다면 필경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리라**. (旣以天之一事下問必能明天之理也)'
f) **han** sejen de **tafaki dere** serede. <滿三3:118b>
'"**황제(한)이시여** 수레에 **타시겠습니까**" 할 때 (便請陛下登輦)'

(67가)에서 kai가 절대자와 함께 사용된 예시를 확인해보면 화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건에 대해 '절대자가 그러하였으리라', '이것은 절대자의 뜻이리라'로 평가하며 청자가 반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기에 kai가 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반대로 (67나)에서 dere가 절대자와 함께 사용된 예시를 확인해보면 어떤 가정된 상황에 절대자가 개입하였을 것이라고 화자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며, 여기에 dere가 결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kai는 화자의 주장이나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절대자를 통해 부여하는 확신의 태도에 쓰이지만, dere는 절대자의 의중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고 추측하는 유보의 태도에 쓰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상황마다 kai와 dere를 달리하는 모습은 양태 범주의 선택이 화자의 주관에 따르는 현상의 예시로 볼 수 있다.

4.3. ayoo

上原久(1960)와 박은용(1969)은 ayoo가 행동 또는 사건에 의혹을 품고 추측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 외에 Аврорин(2000),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도 ayoo를 추측으로 해석하였다. 津曲敏郎(2001)은 ayoo에 대해 "~잖아(ではないか)"라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Roth Li (2000)는 ayoo와 같은 계열의 첨사로 dere, aise, ba를 제시하였다. 박은용(1969)은 ayoo가 기원적으로 ai(무엇), ya(何), -o(의문 어미)가 통합된 형태인 *ayao에서 발달한 형태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만주어를 서술한 고문헌들을 확인보면 ayoo는 단순히 추측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清文助語虛字>, <同文類解> 語錄解에선 ayoo를 서술할 때 "추측/추량"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공포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두 서적 모두 ayoo를 두려움을 나타내는 동사 어미 -rahū(중세 한국어의 '-ㄹ셰라')와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간주해 함께 서술하고 있다. <漢清文鑑>와 <御製增訂清文鑑>도 ayoo에 대해 '유의하여 두려워하는 어기(惟恐口氣)'라고 서술하였다. 즉, 고문헌들은 모두 ayoo가 두려움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4.3.1. ayoo의 분포

<清文助語虛字>는 ayoo가 -rA 뒤에 등장한다고 서술하였지만, 실제 용례를 확인하면 그렇지 않다. ayoo는 kai 및 dere와 함께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며(3.1 참고), 다른 양태 첨사와 마찬가지로 ayoo의 앞에 오는 품사의 종류에는 제약이 없다. ayoo는 정동사 어미 뒤, 불규칙동사 akū, 명사 뒤에 위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용례가 -rA 뒤에 ayoo가 오는 용례보다 더 많다.

(68) ayoo의 분포

가. 정동사 어미 뒤

a) -mbi: jiyanggiyūn aikabade membe ba be waliyafi bederembi seme **gūnimbi ayoo**, <天聰26:4a>

'장군은 혹시 우리가 땅을 포기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b) -hAbi: uttu baha de, gemu geren i dendeme gaiha ubui teile tondoi bahabio, geren de sabuburakū somime gidame **gaihabi ayoo**, <天命10:9a>

'이렇게 얻을 때 모두 여럿이 나누어 가질 몫만큼만 공정하게 받았는가. 여럿에게 보이지 않게 감추고 숨겨 **가진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나. 분사 어미 뒤

a) -rA: han i beye tucifi, ere cooha be ainu sacirakū, hasa saci seme henduci, amba beile hendume, amala aika seme **aliyara ayoo** seme henduci, <天命11:10a>

'한(汗)이 몸소 나와서 "이 군사를 어찌 베지 않는가. 어서 베라"고 말하니 대버일러가 말하기를 "나중에 혹시 **후회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b) -hA: amala amba beile, han de alame, šoto i ehe be, bi **alaha ayoo**, gidaha bihe, <天命16:19a>

'나중에 대버일러가 한(汗)에게 고하기를 "Šoto의 악행을 제가 **어찌 고할까** 하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 불규칙 동사 뒤

a) akū: mederi dooha niyalmai werihe jeku, emu tanggū nadanju hule bi sehe bihe, aikabade **akū ayoo** seme niyalma takūrafi baicafi, boolaha ton i nacibu de afabume buhe, <天命54:12a>

'"바다를 건넌 사람이 남긴 곡식이 170섬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혹시 **없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사람을 파견해서 조사하고 보고한 숫자대로 Nacibu에게 맡겨서 주었습니다.'

라. 명사/형용사 뒤

a) tsootsoo ini sargan jui be bumbi serengge aikabade **tašan ayoo**. <滿三7:22b>

'조조가 자신의 아내를 준다 한 것이 행여 **거짓일까 하노라**. (曹操以女許婚恐其虛意)'

또한 ayoo는 kai 및 dere와 공기하지 않으므로 ayoo는 선행하는 명제 전체를 수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yoo는 kai와 dere처럼 명제를 수식해 해당 명제에 어떠한 양태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ayoo의 의미는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에도 드러난다. ayoo는 중세 몽골어와 근대 한국어, 한어에서 의심이나 두려움의 표현에 대응한다. <滿文三國志>에서 ayoo는 한어에서 염려 또는 두려움으로 번역할 수 있는 恐과 같은 글자에 대부분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69).

(69) <滿文三國志>에 나타나는 ayoo

가. tsaisy hendume. niyalma i mujilen sini mujilen i adali akū **ayoo**. <滿三7:107b>

'채부인이 말하길, "사람의 마음과 너의 마음의 같음이 없을**까 두렵다**." (蔡氏曰誠**恐**他人不似汝心.)'

나. aikabade beye de sain akū **ayoo**. <滿三3:91b>

'행여 몸에 좋을 게 없을**까 두렵다**. (**恐**於身不利).'

<滿洲實錄>에 등장하는 ayoo 또한 몽골어와 한어에서 의구의 형태소나 두려움에 해당하는 한자로 번역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만주어·몽골어·한어를 병기한 <滿洲實錄>에서 ayoo는 총 10번 등장하는데, 이 중 6개 용례는 몽골어 번역에서 두려움과 의문의 표현에 대응하며 한어 번역에선 모두 '恐'에 대응한다(70). 특히 (70가)처럼 ayoo가 몽골어 표현 bolugujai에 대응하는 용례는 4개나 확인된다.

(70) <滿洲實錄>에 나타나는 ayoo와 대응되는 몽골어[63]

가. <滿實1:164>

a) 滿: si ume genere, simbe yaka waki seme guniha bi **ayoo**

b) 蒙: ci buu oduthun, her ber cima dur magu sethihü hümün ujirahu **bolugujai**

63) 해당 예시의 만주어, 몽골어, 한어 문장은 <滿洲實錄>을 번역한 今西春秋(1992)에서 가져왔다.

c) 漢: 汝且勿往. **恐**被人害.

'너는 가지 마라. 너를 누군가 죽일까 하여 생각이 있을까 두렵다.'

나. <滿實2:105>

a) 滿: sinde alaci aikabade jili banjifi mimbe koro arambi **ayoo**

b) 蒙: …her ber hilinglejü namayi jasak tur iyan elgülhü **bolumu**

c) 漢: 欲言. 又**恐**觸怒見責.

'너에게 알리면 어찌 화를 가져 우리를 해 되게 하지 않을까 한다.'

다. <滿實3:202-203>

a) 滿: coohai beise ambasa geren coohai niyalma gemu afarakū **ayoo** seme

b) 蒙: noyat sait olan cerik üt bügüdeger ülü hathulduhu **bolbaguu** hemen

c) 漢: 其諸王大臣軍士惟**恐**不戰.

'군대의 버일러들과 대인들 모임이 병사들을 모두 싸우지 않게 하지 않을까 한다 하여'

라. <滿實8:129>

a) 滿: han i te buhe be cimari amasi gaijara **ayoo** seme

b) 蒙: Hagan ene edür soyurhaksan öklige ben managar harigulju abun **bolbagu** hemen

c) 漢: 吾等**恐**明日仍當取還.

'한께서 지금 가지신 것을 내일 도로 가지지 않을까 한다 하여'

(70)에서 ayoo의 번역어로 사용된 몽골어 bolugujai, bolbaguu, bolbagu, bolumu는 공통적으로 형태소 'bol-'을 가지는데, 이는 '되다'는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이다(Poppe 1964: 160). 이때 bolugujai에서 'bol-'에 결합한 어미 '-(u)gujai'는 몽골어의 의구형 어미(Dubitative ending)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누군가 행할 것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Poppe 1964: 166). bolbaguu[64]와 bolbagu[65]에서 분석되는 '-uu'는 몽골어

64) bolbaguu는 bol- + -ba(i) + -(g)uu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중 -ba(i)는 직전의 과거를 가리키는 제1과거형 어미다(Poppe 1964: 92).

65) bolbagu에서 bol-과 제1과거형 어미를 제외한 -u는 정확한 어형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판정의문문 의문어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bolbaguu와 함께 묶었다.

의 판정의문문 의문조사이다. bolumu의 '-(u)mu'는 직설법 서술형 현재 어미로, 발화 시점 또는 미래에 발생할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해당 문헌에서 보이는 ayoo의 몽골어 번역어는 두려움과 의문, 추정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ayoo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清語老乞大>를 비롯한 청학서에서는 ayoo가 막연한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근대 한국어와 한어 표현에 대응한다.

(71) 청학서에 나타나는 ayoo와 그 해석

가. damu sini araha buda **komso ayoo** <清老3:7a>

'다만 네 지은 밥이 **젹을가 시부다**. (這般時**敢**少了你飯)' <老乞上:36b>

나. sun cuwan hendume aikabade **holtombi ayoo** <三總3:6b>

'孫權이 니로되 힝혀 **소기는가 엇지오**. (權曰**莫非**詐乎)' <滿三9:73a>

(71가)에서 보이는 ayoo는 근대 한국어 '-ㄹ가 시부다'와 한어 '敢'에 대응하는데, 이 둘은 모두 추측을 나타낸다. 또한 '(-ㄹ까) 싶다'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은 '앞말대로 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 기술하고 있으므로,[66] ayoo의 근대 한국어 대역은 두려움 또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나)의 ayoo는 의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번역된 양상이 복잡하지만 대응하는 근대 한국어 표현 '-는가 엇지오'에는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는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응되는 한어 '莫非' 역시 추측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ayoo는 다른 언어에서 두려움, 의혹, 의문, 추측, 걱정의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ayoo 역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금 더 압축하자면, ayoo는 크게 '추측'과 '두려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번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6)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Retrieved December 16, 2022>

4.3.2. ayoo의 의미: 인식 양태적 의구(Dubitative)

ayoo는 다른 첨사인 kai 및 dere와 동일하게 선행하는 명제 전체를 수식한다. 또한 ayoo가 다른 언어들로 번역된 모습을 관찰하였을 때 이들은 모두 추측이나 의심 및 두려움에 대응된다. 즉, ayoo는 어떠한 비현실 상황에 대해 추측하거나 두려워함을 표현한다. 따라서 ayoo는 의구(Dubitative)의 인식 양태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ayoo는 만주어의 조건문 표지인 '-ci'를 포함하는 문장에서 귀결절(apodosis)에 나타나는 예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kai 및 dere와는 다른 모습이다. 조건문의 조건절(protasis)이 귀결절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ayoo는 화자가 근거 없이 명제의 진릿값을 추측할 때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Rentzsch(2012)의 결론과는 달리 ayoo는 {dere, kai, ayoo, aise} 중에서 가장 낮은 확신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ayoo는 근원적으로 두려움의 감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나타내는 또 다른 형태소인 '-rahū'와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rahū는 모든 시제와 공기할 수 있는 ayoo와 달리 항상 비과거 시제만 의미할 수 있다. 또한 ayoo는 청학서에서 '-ㄹ가 시부다' 또는 '-ㄴ가 엇지오'로 번역되는 반면, -rahū는 일괄적으로 '-ㄹ셰라'로 번역된다는 차이를 보인다(72).[67]

(72) 청학서 대역에 드러나는 -rahū

가. gūwa niyalma **gamarahū** <淸老7:1b>
'다른 사름 **가져 갈 셰라**'

나. sakda hūlha **kenehunjerahū** hūdun geneci acambi sefi <三總1:18a>
'노적이 **의심홀셰라** 급히 가 보쟈 ᄒᆞ고 창 잡고 가려 ᄒᆞᆯ 제'

67) 중세 한국어에서는 '-ㄹ셰라/-ㄹ쎄라', 현대 한국어에서는 '-ㄹ라'로 나타나는 이 형태소는 기존 학계에서 '경계법'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영근 2020: 338). '경계법'이라는 범주의 설정은 의심스러우나, 이는 본고의 관심사에서 벗어나므로 논하지 않겠다.

4.4. aise

aise는 kai, dere, ayoo에 비해 빈도수가 적어 분석이 어렵다. 본고에서 주로 참고하는 문헌인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 전체에서 aise는 7건과 10건밖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aise의 의미는 기존의 서술과 aise에서 그나마 일관적으로 보이는 행동 양상만으로 짐작해야 한다.

aise는 보통 추측 또는 의문으로 서술되었다. 上原久(1960)는 aise를 의혹적 추량인 ayoo와는 반대로 긍정적 추량으로 서술하였다. 河内良弘·清瀬義三郎則府(2002)는 aise를 조동사로 분류하였는데, aise를 의문사 ai와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se-'의 합성어로 보았다.[68] Gorelova (2002)는 aise를 'na, o'와 함께 의문 첨사로 분류하였다. 津曲敏郎(2001), Аврорин (2000), Roth Li(2000)는 aise를 추측의 첨사로 서술하였다. 즉, 학자마다 의문으로도, 추측으로도 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aise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식 양태와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aise는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문말에 위치하고, 이는 kai, dere, ayoo가 나타나는 위치와 동일하다. 즉, aise는 특정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 전체를 수식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인식 양태적 의미를 부과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의문 역시 인식 양태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aise가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확률에 무게를 싣는다. 의문은 명백하게 모르는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명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다.

4.4.1. aise의 의미: 인식 양태적 추정(Assumptive)

aise는 청문감 계열 서적에서 'kenehunjeme bodome gisurere mudan(의심하고 생각하여 말하는 표현)'으로 기술되었다. 한편 <清文助語虛字>는

68) aise를 'ai'와 'se-'의 합성어로 보는 견해는 청학서에 나타나는 aise의 대역과도 연관이 있다. 자세한 것은 5.4를 참고하라.

aise의 의미가 ainci의 의미와 같으며, aise의 뜻이 ‘이에 생각하면 당연하다[乃想當然]’라고 설명한다. 이때 청문감 계열 서적의 ‘kenehunje-’는 dere 및 ayoo에 대한 서술에도 등장하므로, ‘kenehunje-(의심하다)’는 정말로 의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식 양태적으로 추측의 행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aise의 일차적인 의미는 <清文助語虛字>에 서술된 것처럼 ‘이에 생각하면 당연하다’가 될 것이고, 여기서 aise가 추측과 연관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kai와 달리 aise는 의문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aise가 반어를 통해 인식 양태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한편 aise가 등장하는 문맥을 살펴보면 자신이 수식하는 명제가 참임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앞뒤로 동반하고 있다.

(73) aise의 용례

가. han, …(중략)…, dahai baksi, lungsi baksi i baru hendume, sikse inenggi abalahangge jurgan de **acahakū aise**, juwe beile gemu morin ci tuheke, ainci tušaha amba weile be sindafi ainu abalambi seme dere sehe. <天聰28:2b-3a>

‘한(汗)이 …(중략)…, Dahai 박시와 Lungsi 박사를 향해 말하기를, “어제 몰이사냥을 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두 버일러가 모두 말에서 떨어졌다. 아마도 당면한 큰 일을 두고 어찌 몰이사냥을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했다.’

나. han, ing de jifi manggūltai beile be toome, …(중략)…, gurun be ujire doro dasara be gūnime, lata morin yalufi beyebe nomhon arame yabure jakade, mimbe dule inci budun **sembi aise** seme hendume, <天聰40:5a>

‘한(汗)이 영에 와서 Manggūltai 버일러를 꾸짖으며, …(중략)… “백성을 보살피는 법도와 정치를 생각하며 굼뜬 말을 타며 스스로를 낮추며 행하는 까닭에, 나를 본래 저보다 유약하다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며,’

(73가)에서 aise로 수식되는 명제인 “sikse inenggi abalahangge jurgan de

acahakū (어제 몰이사냥을 한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를 참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다음 문장인 "juwe beile gemu morin ci tuheke(두 버일러[대버일러와 Manggūltai 버일러]가 모두 말에서 떨어졌다)"이다. (73나)에서 aise가 수식하는 명제 "mimbe dule inci budun sembi (나를 본래 저보다 유약하다 한다)"를 참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앞의 "gurun be ujire doro dasara be gūnime, lata morin yalufi beyebe nomhon arame yabure jakade (백성을 보살피는 법도와 정치를 생각하며 굼뜬 말을 타며 스스로를 낮추며 행하는 까닭에)"이다. 즉, aise는 화자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참이라고 믿는 명제에만 부가된다. 따라서 aise는 중립적인 추측인 dere보다 확신의 kai와 가까우며, 추론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4.2. aise의 특징

기존 연구에서 aise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aise의 대역어가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74) <滿文三國志>의 aise

가. lioi bu hendume. ahūn soktohobi **aise**. <滿三1:98a>
'여포가 말하기를, "형님, 취하지 **않았습니까**." (布曰兄醉**矣**)'

나. sargan, lioi bu i joboro cira be safi fonjime si enenggi dung taisy de wakalabuha **aise**. <滿三2:76a>
'처가 여포가 걱정하는 표정을 보아서 묻기를 "당신 오늘 동 태사[동탁]에게 질책받**지 않았습니까**." (妻見布情緒不佳問曰汝今日**莫非**被董太師見責來)'

다. jeo ioi sesulafi hendume. kungming bio. sun ciyan hendume, bi **aise**. <滿三11:3a>
'주유가 놀라서 말하기를, "공명이 있겠습니까." 손권이 말하기를, "있지 **않겠소**." (瑜驚曰有孔明否乾曰**敢**有在彼)'

라. fu ceng hecen i hafan cooha, irgen wei gurun i cooha be sabufi abka ci wasika **aise** seme <滿三24:41b-42a>

‘부성의 관리와 군민이 위나라의 군대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겠냐** 하여 (城內官吏軍民見魏兵**疑**是天降)’

마. jang fei hendume, han te abkai jui ofi toro yafan de gashūha be onggoho **aise**, <滿三17:7a>

‘장비가 말하기를, “형님(←한)은 지금 천자[天子]가 되어서 도원의 결의를 잊으셨**지 않겠는가**.” (飛曰陛下今日爲君早忘了桃園之誓)’

(74)처럼 <滿文三國志>에서 aise가 등장하는 문장과 대응되는 한어 문장을 살펴보면, aise가 kai에 주로 대응되는 어조사 也와 矣와도 연결되지만 ayoo에 대응하는 莫非와 敢에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심지어 (74마)처럼 원문에 인식 양태 표현이 없어도 aise를 포함해서 번역한 문장이 존재한다. 이렇게 단언을 aise에 대응시킨 것은 Rentzsch(2012)의 결론과는 달리 aise가 확신성 척도(epistemic scale) 상에서 kai와 겹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예상할 수 있다.

더불어 (74)에서 aise가 등장하는 맥락을 통해 그 번역어는 일정하지 않더라도 aise의 기능이 ‘근거를 바탕에 둔 추론’임을 짐작할 수 있다. (74가)의 여포는 이숙(李肅)의 붉어진 얼굴을 보고 그가 술에 취했음을 짐작한다. (74나)에서 여포의 처는 동탁의 불편한 안색을 보고 그가 겪은 일을 추론한다. (74다)의 손권은 (형주 4군을 평정하러 유비가 온 것을 보고) ‘주군이 가는 곳에 모사는 당연히 있다’라는 상식을 바탕으로 공명이 있을 것을 짐작한다. (74라)의 관리와 백성들은 위나라의 군세를 보고 그들의 강함을 확신하며, (74마)에선 황제가 된 유비가 해당 시점에서 이미 죽은 관우를 위한 복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장비가 불만을 표하고 있다.

aise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는 kai, dere, ayoo 등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이다. aise는 조건문의 귀결절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이는 ayoo와는 비슷하고 kai 및 dere와는 다른 모습이다. kai 및 dere는 전체의 3분의 1이 조건문의 귀결절에서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들이 aise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본고에

서는 4.4.1에서 서술한 것처럼 aise를 잠정적으로 인식 양태적 추정을 의미하는 양태 첨사로 보겠다.[69]

69) 그 외에, aise가 의문문으로 해석되는 것이 전형적인 증거성 표현의 행동 양식이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aise는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정보의 도출'이라는 점에서 증거성 표지로도 보이고 한국어의 '-(ㄴ)구나'와 비슷해보인다. 그러나 aise가 ainci와 의미가 동일하다는 만주인의 서술이 존재한다는 점, 추측 및 추론은 간접 증거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aise는 아직 인식 양태 첨사로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5. 청학서 번역에 나타나는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

청학서(淸學書)에는 만주어 문장과 그에 대응되는 근대 한국어 해석이 일대일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다(1.3 참고). 따라서 청학서를 통해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가 근대 한국어에서 어떠한 표현에 대응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한 청학서와 해당 서적들에 등장하는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의 빈도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청학서에 등장하는 만주어 문어 인식 양태 첨사의 빈도

첨사	dere	kai	ayoo	aise
淸老	11	43	1	2
三總	13	104	5	2
小兒	1	4	-	-
八世	1	-	-	-

청학서에 나타나는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번역어는 '선어말어미 + 종결어미' 조합이나 우언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한국어는 종결 어미로 문장 유형을 표현하고 종결 어미에 선행하는 선어말 어미로 인식 양태를 표현하는데, 이는 근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였다(이광호 2004: 356-357). 또한 범언어적으로 문장 유형을 나타내는 표현이 가장 상위에 위치하며, 증거성 표현이나 인식 양태 표현은 문장 유형 표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위치한다(1.2.2.3 참고). 따라서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는 주로 한국어의 선어말어미에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가 ᄒᆞ노라', '-일 것이니' 등의 우언적 구성도 인식 양태 첨사의 번역어로 상당수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문장 유형은 여전히 종결 어미로 표현되므로 위의 예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가 근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나타내게 된 의미와 그 빈도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70]

표 4 각 의미로 번역된 인식 양태 첨사의 개수

	추측	단언	감탄	원망	청유
dere	21	2	-	2	1
kai	36	88	25	-	-
ayoo	6	-	-	-	-
aise	4	-	-	-	-

5.1. 추측(Speculative)의 dere

dere는 4.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이었다. dere는 kai, ayoo, aise에 비해 그 의미를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학서의 근대 한국어 번역에도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dere는 추측이 아닌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dere의 대역어로 사용된 표현은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5 각 의미로 번역된 dere의 개수와 그에 해당하는 근대 한국어 표현

dere	추측	단언	감탄	원망	청유
개수	21	2	-	2	1
표현	-가 ᄒᆞ노라 -일 것이니 -리라/리다 -리어니와	-이라 -나		-어지라	-쟈

70) 근대 한국어의 양태에 관련된 용어들은 이광호(2004: 356-357)를 참고하였다.

청학서에 등장하는 dere의 근대 한국어 번역에서 주목할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1인칭 주어와 공기하는 원망법 어미 '-ki'가 dere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清語老乞大>와 <三譯總解>가 서로 다른 번역어를 사용하고 있다. 4.1.2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ki'는 1인칭 복수 주어와 함께 사용되면 청유를 나타내고, 여기에 dere가 결합하면 청유 의미의 강도가 약화되어 공손성을 가지게 된다(75). 그러나 <清語老乞大>에서는 '-ki'와 '-ki dere' 모두 청유의 '-쟈'로 번역되고 있다(76).

(75) <三譯總解>에 나타나는 '-ki dere'의 대역 양상

가. amala jobolon be lashalame tsai yang be amcabufi **waki dere** <三總 2:4b>

'홋 근심을 슨흐려 ᄒᆞ면 蔡陽으로 ᄲᅳᆯ아 **죽여지라**'

나. sioi cu hendume ere niyalma jaci doro akū dabaha **jafaki dere** <三總2:14b>

'許褚 니로되 이 사ᄅᆞᆷ이 ᄯᅩ 녜 업슴이 넘씨니 **잡아지라**'

다. muse nure omime sebjeleki talman heteme uthai **bedereki** <三總 4:15a-b>'우리 술 먹고 즐기다가 안개 거드며 즉시 **믈러가쟈**'

(76) <清語老乞大>에 나타나는 '-ki dere' 및 '-ki'의 대역 양상

가. muse sasari **yoki dere** <清老1:10a>

'우리 ᄒᆞᆷᄭᅴ **가쟈**'

나. uttu oci muse cimari sasari **geneki** <清老5:3b>

'이러ᄒᆞ면 우리 ᄂᆡ일 ᄒᆞᆷᄭᅴ **가쟈**'

이러한 번역 양상은 <老乞大>류 문헌 자체의 특수성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清語老乞大>에서는 화자보다 높은 청자에게 발화하는 경우에도 근대 한국어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을 거의 찾을 수 없다(77). 즉, 처음부터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ki'와 '-ki dere'도 공손성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번역되었을 것이다.

(77) <淸語老乞大>와 <三譯總解>의 높임 표현 양상

A: amba age si aibici jihe

B: bi coohiyan wang ging ci jihe <淸老1:1a>

‘큰형아 네 어ᄃᆡ로셔 온다’ – ‘내 朝鮮 王京으로셔 왓노라’

dere의 청학서 대역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dere가 추측이 아닌 단언으로 번역된 용례가 2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78). 그러나 (78)에 제시된 단언으로서의 dere는 모두 추측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기존 연구에서 dere에 강조의 용법이 있다고 언급했던 것과 연결할 수 있지만, 해당 연구에서 강조로 나타났던 dere 역시 추측으로 해석이 가능했다. 그리고 이러한 dere들이 단언으로 번역된 것은 한어 원문에서 dere에 대응되는 표현의 의미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높다.[71] (78가)에서 dere에 대응되는 耳는 한어에서 단언을 나타내는 어기사다. (78나)에서 dere에 대응되는 是는 계사로 기능한다.

(78) 청학서에서 단언으로 번역된 dere

가. tsootsoo hendume ere majige jaka jiyangjiyūn i amba gung de tumen de emgeri **karularengge dere** <三總2:13a>

‘曹操ㅣ 니로되 이 젹은 거스로 쟝군의 큰 공에 만에 ᄒᆞᆫ 번이나 **갑흐려 ᄒᆞᆫ 거시라** (操曰特以少酬大功萬一耳)’

나. kungming hendume ere emu arga i jiyang g'an be **holtoho dere** <三總4:3a>

‘孔明이 니로되 이 ᄒᆞᆫ 쇠ᄂᆞᆫ 蔣幹을 **소김이라** (孔明曰這條計只是瞞過蔣幹)’

---

71) 역접의 연결어미 ‘-나’로 나타나 단언과 추측의 근대 한국어 표현으로 대응되지 않은 예시가 다음과 같이 하나 존재하나, 해당 문장의 dere는 한문 원문의 ‘怕不如此爭’, 즉 ‘아마도 이같이 싸우지 않으리라’ 또는 ‘논쟁거리가 아니리라’에 대응하므로 추측의 표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hiowande hendume, fujin i mujilen **uttu hendumbi dere**, damu u taiheo u heo ainaha i fujin be unggire <三總10:15b>

‘玄德이 니로되 夫人의 ᄆᆞᄋᆞᆷ에 **이러트시 니ᄅᆞ나** 다만 吳太后와 吳侯ㅣ 엇지ᄒᆞ여 夫人을 보내리오. (玄德曰夫人之心**怕不如此爭**奈國太與吳侯安肯容夫人去也)’

5.2. 확신(Deductive)의 kai

kai는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2.1에서 확인하였듯이, <漢淸文鑑>에도 kai에 대해 '業已完口氣'라는 풀이만 제시하였다. <同文類解> 語錄解는 kai에 대해 'ᄒᆞ도다'라는 번역어를 제시한 바가 있다.

청학서의 kai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ere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번역된다. 다만 과반이 선행 연구에서 지적했던 kai의 의미인(2.3 참고) 단언 또는 강조로 번역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표 6 각 의미로 번역된 kai의 개수와 그에 해당하는 근대 한국어 표현

kai	추측	단언	감탄	원망	청유
개수	36	88	25	-	-
표현	-염즉 ᄒᆞ다 -가 ᄒᆞ노라 -리라	-이(니)라 -노라 -더니 -다	-{닷/도/로/ᄂᆞᆫ또}다 -는지라 -랏다		

청학서에 나타나는 kai의 대역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kai가 감탄으로 번역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79). 이러한 kai는 마치 nikai와 같이 강조 또는 감탄의 의미가 강하며, 설득을 위한 근거 제시의 기능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79) 청학서에서 감탄으로 번역된 kai

가. uttu oci **sain kai** <淸老1:10a>
'이러ᄒᆞ면 **죠토다**'

나. ere uthai honin be ilibure **ba kai** <淸老6:7b>
'이ᄂᆞᆫ 곳 羊을 세오ᄂᆞᆫ **곳이로다**'

다. pangtung hendume unenggi erdemungge **jiyangjiyūn kai** <三總 7:13a-13b>

‘龐統이 니로되 진실로 ᄌᆡ조읫 **쟝쉬로다**’

라. tsootsoo hendume mini jalgan **wajiha kai** sehe bici <三總9:14b>

‘曹操ㅣ 니로되 내 명 **ᄆᆞᆺᄎᆞ리로다** ᄒᆞ더니’

이는 근대 한국어 화자들이 kai와 nikai의 의미를 비슷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제로도 kai에서 사용된 번역어가 구분 없이 nikai에도 그대로 사용된다(80). (80)가의 nikai는 감탄으로 번역된 반면, (80나)의 nikai는 단언으로 번역된 모습을 볼 수 있다.

(80) 청학서에 등장하는 nikai의 번역

가. wang yun hendume jiangjiyūn dule **sarkū nikai** <三總1:2a>

‘王允이 니로되 쟝군은 샹풍 **모로ᄂᆞᆫᄯᅩ다**’

나. te tuwaci **yargiyan nikai** sefi <三總7:15a>

‘이제 보니 **분명타** ᄒᆞ고’

한편 청학서의 kai는 추측의 표현에 대응하기도 한다(81).

(81) 청학서에서 추측으로 번역된 kai

가. gūwa niyalma donjiha de **basumbi kai** <清老4:21a-b>

‘다ᄅᆞᆫ 사ᄅᆞᆷ 드르면 **우스리라**’

나. butui dorgi de hutu enduri de **ubiyabumbi kai** <清老7:15a>

‘어두온 듕에 鬼神의게 **믜이이리라**’

다. gung jin aikabade donjiha de urunakū jug'oliyang be **nungnembi kai** <三總4:4a>

‘公瑾이 힝혀 드르면 반ᄃᆞ시 諸葛亮을 **거오리라**’

라. jeo ioi baru afaha de urunakū **jafabumbi kai** <三總6:14a>

‘周瑜 향ᄒᆞ여 싸홀 제 반ᄃᆞ시 **잡히이리라**’

이는 4.2.2에서 확인했던 kai와 dere의 공통점에서 충분히 유도될 수 있는 결과다. kai와 dere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ainci와 공기할 수 있다. ainci와 공기하는 횟수는 dere가 더 많지만, 이는 kai 역시 기본적으로 dere

와 같이 인식 양태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학서의 kai는 ainci와 공기하지 않으며, 대신 '반ᄃᆞ시[必]'의 의미를 가지는 urunakū와만 공기한다. 청학서에서 urunakū와 공기하는 kai는 전체 용례수 36건 중 7건이다.[72]

5.3. 의구(Dubitative)의 ayoo

청학서에 등장하는 ayoo의 용례는 아래의 6건이 전부이며(82),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근대 한국어 표현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단언을 의미하는 종결어미로 번역되지 않는다. <淸語老乞大>와 <三譯總解> 모두 ayoo가 포함된 문장의 번역을 의문문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제시하는데, 이는 ayoo의 어원을 의식한 번역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박은용(1969: 133)은 ayoo가 의문사 ai, '엇지'에 해당하는 ya[何], 그리고 의문 첨사 '-o'의 통합 형태인 *ayao에서 발달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82) 청학서에 등장하는 ayoo

가. damu sini araha buda **komso ayoo** <淸老3:7a>
'다만 네 지은 밥이 **젹을가 시부다**'

나. jiyangjiyūn de aikabade jugūn de batalara jaka **akū ayoo** seme <三總2:12a>
'쟝군의게 힝혀 길히 쓸 것 **업스면 어이료** ᄒᆞ여'

다. yūn cang tere be aikabad **argadambi ayoo** seme <三總2:16b>
'雲長이 져를 힝혀 **쇠ᄒᆞ면 어이료** ᄒᆞ여'

라. sun cuwan hendume aikabade **holtombi ayoo** <三總3:6b>
'孫權이 니로되 힝혀 **소기ᄂᆞᆫ가 엇지오**'

마. kungming hendume damu genggiyen gung be aikabade mini gisun be **daharakū ayoo** sembi <三總3:9a>

72) 다만 (81)의 kai는 모두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동사 어미 '-mbi' 앞에서 등장하므로, (81)의 '-리-'는 -mbi의 미래 자체와 연관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래 시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므로, 이렇게 해석해도 (81)의 kai가 여전히 추측의 의미로 번역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孔明이 니로되 다만 明公은 힝혀 내 말을 좃지 **아니면 엇지ᄒᆞ료** ᄒᆞ니’

바. kungming hendume tsootsoo hūwa zung doo be **genehekū ayoo** <三總9:21a>

‘孔明이 니로되 曹操ㅣ 華容道로 **가지 아니ᄒᆞ던가 엇진고**’

청학서의 ayoo는 문헌별로 다르게 번역된다. <淸語老乞大>의 ayoo는 ‘-ㄴ가 시부다’로 번역되었다(82가). <三譯總解>의 ayoo는 의문사 ‘엇지’를 사용한 ‘-면 엇지-/엇지ᄒᆞ료’와 ‘-ㄴ가 엇지오/엇진고’, 그리고 ‘-면 어이료’에 대응된다(80나-바). 이 중에서 ‘-면 엇지ᄒᆞ료’와 ‘-면 어이료’는 의구로서의 ayoo가 가진 ‘두려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4.3.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슷한 뜻의 어미 ‘-rahū’는 ayoo와는 다르게 청학서에서 일관되게 경계법 ‘-셰라’로 번역된다. 이는 ‘-rahū’는 한국어의 ‘-셰라’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반면 ayoo는 통사 구조상 ‘-셰라’와 일대일로 대응시킬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4. 추정(Assumptive)의 aise

청학서에 등장하는 aise의 용례는 아래의 4건이 전부이다.

(83) 청학서에 등장하는 aise

가. emu asihata bihe te ubade akū **tucike aise** <淸老5:5b>

‘ᄒᆞᆫ 졈은이 잇더니 이제 여긔 업스니 **나간 듯 시부다**’

나. geli booi jasigan be bahara todolo be doigonde **ulhibuhengge aise** <淸老5:8a>

‘ᄯᅩ 집 편지를 엇ᄂᆞᆫ 징죠를 미리 **알뢰든 거신가 시부다**’

다. sargan lioi bu i joboro cira be safi fonjime si enenggi dung taisy de **wakalabuha aise** <三總1:7b>

‘계집이 呂布의 수심ᄒᆞᄂᆞᆫ ᄂᆞᆺ출 보고 무로되 네 오ᄂᆞᆯ 董太師의게 **그릇ᄒᆞᆫ가 엇진고**’

라. yūn cang ekisaka kungming hendume jiyangjiyūn mimbe goro okdoko akū seme **ushambi aise** sefi <三總9:20b>
‘雲長이 즘즘커늘 孔明이 니로되 쟝군이 나를 멀리 맛지 아닌가 ᄒᆞ여 **허믈ᄒᆞᄂᆞ냐 엇지오** ᄒᆞ고’

<清語老乞大>의 aise는 ayoo처럼 ‘-ㄴ가 시부다’로 번역되었다(83가, 나). <三譯總解>에서의 aise는 부가의문문(tag question)과 같은 모습으로 번역되었다(83다, 라).

6. 결론

본고는 ‘첨사’로 임의 분류되었던 만주어 문어 단어들을 분포를 기준으로 재분류하고, 이 중 동일한 계열을 이루면서 문장의 최상단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인식 양태 표현 기능을 수행하는 ‘인식 양태 첨사’임을 보이며 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이를 위해 한어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초기의 만주어 현실을 보여주는 17세기 만주어 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고,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를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요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2장에서는 만주어를 서술한 고문헌에서 첨사에 대한 기술을 확인하고, 기존의 논의에서 첨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설명하였는지 점검하였다. 그 결과 첨사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기존 연구들은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들을 문말에 나타난다는 이유만으로 첨사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은 ‘문말’이라는 위치를 제외하면 문장 내에서의 분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첨사를 분류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유지되기 힘들었다. 또한 절 바깥에 위치하는 형태소가 인식 양태 범주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언’, ‘강조’ 등 단편적인 용어만을 사용해 첨사의 의미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만주어와 가깝지만 동일한 문법을 가졌다고는 볼 수 없는 시버어 등을 포함하기도 하였으며, 상당수 연구가 특정 시기의 문어 만주어로 연구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3장에서는 연구 자료를 17세기 만주어 문어 자료로 한정하고, 언어적 분포를 통해 만주어 첨사를 다시 분류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다룬 첨사들의 목록은 “aise, akū, ayoo, bai, be, bi, dabala, dere, inu, jiya, jiye, kai, ne, ni, nikai, nio, nu, -o, ume, unde, waka, wajiha”인데, 이 중에는 다른 품사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들이 존재하였다. bi와 akū는 술어의 위치에서 사용되는 불규칙 동사였으며, inu와 waka는 명사 또는 명사성

형용사로 간주할 수 있었다. -o는 의문문(interrogative)이라는 문장 유형(sentence type)을 나타내는 어미였다. dabala와 wajiha는 형용사와 동사에서 기원하였으며, 각각 -rA와 -ci 뒤에 나타나 우언적 구성(periphrastic structure)을 이루고 있었다. unde 역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rA 뒤에만 위치해 우언적 구성을 이루는 형용사로 기능하였다. 첨사로 간주되었던 be는 주어가 serengge로 표지되는 분열문에서만 나타났으며, 여전히 대격 표지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 단어는 일정한 계열 관계를 이루며 순서대로 나타났는데, {akū, bi, waka, inu}가 동사와 같은 위치에 오고 그 위에 {sere, ni}가 위치하였으며, 가장 바깥에는 {dere, kai, ayoo, aise}가 존재하였다. {dere, kai, ayoo, aise}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며 하나의 완결된 명제의 바깥에 존재하고, 해당 위치는 명제와 증거성 표현을 수식할 수 있는 위치였다. 따라서 네 단어 {dere, kai, ayoo, aise}가 명제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 추측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들 어휘가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관되는 양태 범주인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짐을 보였다. dere는 인식 양태적 추측(Speculative)에 상응하는 단어였다. dere는 '아마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ainci와 자주 공기하였으며, 가장 중립적인 의미의 추측을 나타내는 첨사였다. 일부 연구들은 dere가 특수한 환경에서 청유 및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당 연구에서 지적한 환경인 '-ki dere' 및 '-rA dere'에서 청유 및 의지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dere가 아닌 -ki와 -rA였다. 또한 -ki 및 -rA 뒤에 dere가 나타나는 상황은 모두 권유의 상황이거나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발화하는 경우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는 해당 환경에서 dere가 -ki와 -rA의 의미를 약화시켜 공손성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kai는 인식 양태적 확신(Deductive)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kai는 화자가 강하게 확신하거나 단언하는 발화에서 등장하였으며, '필히'의 뜻을 가진 부사 urunakū나 '아마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 ainci

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인식 양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kai는 다른 첨사들과는 달리 담화 표지로 기능해 항상 명시적인 청자를 요구하는 대화문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상식을 나타내는 문장에 자주 결합한다는 사실로부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 제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yoo는 인식 양태적 의구(Dubitative)를 표현하는 어휘였다. ayoo가 수식하는 명제는 화자가 근거 없이 막연하게 짐작하는 명제였다. 이는 ayoo가 kai 및 dere와는 달리 만주어의 대표적인 조건문 표지인 -ci 뒤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되었다. 그리고 <滿洲實錄>이나 <蒙語老乞大> 등의 서적에서 ayoo에 대응하는 어휘들은 모두 두려움과 의문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몽골어의 의구형 어미 -(u)gujai가 ayoo에 자주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aise는 인식 양태적 추정(Assumptive)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상정할 수 있었다. aise는 만주어 문헌에서 부사 ainci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기술되었으며, aise가 등장하는 문장의 앞뒤로 aise가 수식하는 명제가 참임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동반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aise는 다른 언어로의 번역 양상이 일관되지 않았다.

5장에서는 4장에서 파악한 {dere, kai, ayoo, aise}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들이 어떠한 근대 한국어 표현에 대응되는지를 청학서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dere는 대부분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번역되었지만, '-ki dere'는 청유로 번역되었고 청자의 상대적인 지위에 따라 번역 표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kai는 근대 한국어에서 단언 및 추측으로 많이 번역되었지만 1/5에 가까운 수가 감탄으로 번역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추측으로 번역된 경우 '반드시'를 의미하는 부사 urunakū와 공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ayoo는 염려의 의미로 번역되었다. aise는 의문문으로 번역된 모습이 관찰되었다.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Rentzsch(2012)가 보여주었던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인식 양태적 강도 분포(그림 1)을 다시 그리면 그림 3과 같다.

확신성 정도의 정확한 값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 지점(0과 1)을 제외한 눈금과 수치는 모두 제거하였으며, 각 인식 양태 첨사가 화용적인 기능도 가진다면 이를 설명에 덧붙여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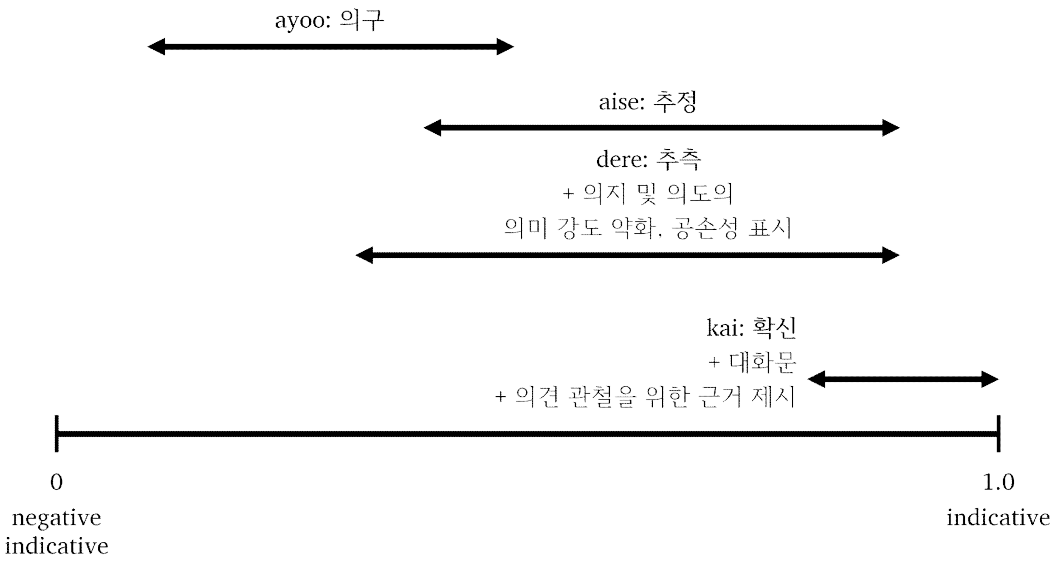

그림 3 만주어 인식 양태 첨사의 확신성 도표

또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근거 제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거나 근거를 항상 동반한다고 볼 수 있는 kai와 aise를 '강한 추측'으로 묶을 수 있다. 그리고 의미 강도를 약화시키거나 막연한 추측 및 염려를 표시하는 dere와 ayoo를 '약한 추측'으로 묶을 수 있다. 이는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를 단순히 선형적으로 분석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본고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본고는 그동안 진지한 언어학적 고찰 없이 임의로 설정되었던 '첨사' 범주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기존에 '첨사'로 분류되었던 단어들을 계열 관계와 통합 관계를 통해 재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주어에서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첨사'라는 범주를 재정의하였으며, 기존에 첨사로 분류되던 어휘들 중에서 다른 품사로 분류되지 않고 남은 어휘들인 {dere, kai, ayoo, aise}는 문말에서 하나의 계열 관계를 이루는 '인식 양태 첨사'로 다시 설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다음으로, 본고는 만주어의 양태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언어학적인 양태 논의를 도입하였다. 본고는 Palmer(2001), Nuyts(2016) 등 유형론을 바탕으로 의미론을 연구한 이들이 기술하고 분류한 양태 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만주어의 인식 양태 첨사 역시 언어보편적인 양태 논의를 바탕으로 기능과 분포를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본고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자료의 불균질성을 해소하였다. 본고는 '17세기 만주어 문어'를 연구 자료로 삼았고, 여기서 공시적 및 통시적으로 변이를 보이지 않는 자료를 채택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여 <滿文老檔>과 <滿文三國志>를 선택하였다. 해당 자료들은 실제 간행 연도가 18세기이지만 17세기에 간행된 저본을 바탕으로 작성된 문헌이고 저본과 중간본 사이의 문법적 차이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므로 '17세기'라는 통시적 조건을 지킬 수 있었다. 또한 오로지 '만주어 문어'만 다루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시적 조건을 지키기 위해 시버어 및 만주어 구어는 배제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먼저, 인식 양태 첨사의 수 자체가 만주어 문어에서 드물게 발견된다는 점이 인식 양태 첨사에 대한 언어보편적 논의를 하는 데 제한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aise는 dere, kai, ayoo 등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적은 빈도로 등장한다. 그러나 빈도와는 상관없이 aise 역시 {dere, kai, ayoo}와 계열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분포로 확인할 수 있으며, {dere, kai, ayoo}와 함께 인식 양태를 표현한다는 사실을 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낮은 빈도수는 연구 범위를 넓혀 18세기 및 19세기의 만주어 문어까지 포함하고 문헌의 종류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연구 범위를 19세기까지 넓힌다면 인식 양태 첨사의 분포와 의미의 통시적 변화까지 기술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kai와 dere 이외의 다른 인식 양태 첨사들은 어떠한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kai는 설득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반드시 명시적인 청자가 필요한 담화 표지로 기능하였다. dere는 의지 및 의도의 표현 뒤에 결합해 그 강도를 낮추어 공손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같은 계열을 이루는 ayoo와 aise도 화용적 기능을 역시 가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ayoo와 aise가 담화 표지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지 않았는데, 후속 연구에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주어가 만주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부터 만주어에 큰 영향을 끼쳤던 몽골어 문어, 또는 중세 몽골어에서 해당 인식 양태 첨사들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는 점이 미흡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는 몽골어 문어 대역 양상을 면밀하게 확인했던 첨사는 ayoo와 aise였고, 이를 통해 ayoo에 의구의 감정 양태가 존재하며 aise는 당연함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dere와 kai가 몽골어 문어에서 어떤 표현에 대응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가와사키 케이고[河崎啓剛](2016), 「중세한국어 감동법 연구—‘깨달음’과 ‘복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간노 히로오미[管野裕臣](2001), 「사역원 청학서의 원문과 대역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 『알타이학보』 11, 한국알타이학회, 139-147.

강민하(2022), 「만주어의 분열문과 첨사 be에 대한 소고」, 2022년 한국알타이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알타이학회, 101-116.

고동호(2000), 「漢淸文鑑 ‘一云’ 만주어 語句의 통시 음운론적 특징」, 『알타이학보』 10, 한국알타이학회, 57-79.

고동호(2015), 「한국의 만주어 연구 현황과 과제」, 김주원 외,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91-13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역주회(2017), 『만문노당 역주 1~4』, 소명출판.

고영근(2020),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제4판), 집문당.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Retrieved December 16, 2022, from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김두현(2008), 「『滿文原檔』과 入關前 淸史硏究」, 『명청사연구』 30, 명청사학회, 259-286.

김양진·신상현(2017), 「『同文類解』 語錄解 譯註」, 『인문학연구』 35,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75-209.

김주원·고동호·최계영·박상철·도정업·이형미·김혜·심재홍(2019), 『만문노당 태조 1~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지희(2016), 「《태조실록》에 나타나는 특지의문문 고찰」,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중어중문학회, 350-363.

도정업(2015), 「《滿文老檔》과 《滿洲實錄》의 만주문 대조 연구」, 『알타이학보』 25, 한국알타이학회, 1-35.

도정업(2019a), 「전언 표지로서의 만주어 첨사 sere의 특성」, 『러시아학』

18, 충북대학교 러시아·알타이지역 연구소, 59-80.
도정업(2019b), 「만주어 첨사 nikai와 의외성의 관계」, 『알타이학보』 29, 한국알타이학회, 27-47.
도정업(2021),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만주어 첨사 dere의 추론 증거성 표지로서의 특성」, 『인문논총』 78(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187-220.
메이광[梅廣] 저, 박정구·백은희·조은정 역(2017), 『고대중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목정수(2022), 「유형론과 한국어 연구의 상관관계—한국어 구문 유형론에서 경계해야 할 것들」, 『국어학』 101, 국어학회, 383-437.
박상철(2016), 「만주어 종결어미 -re와 -mbi의 분포와 의미」, 『언어학』 7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43-68.
박상철(2017), 「만주어 문어의 시제와 양상 연구—<滿文老檔>의 용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상철(2022), 「청학서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특히 만주어와 한국어의 시상체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34, 국어사학회, 103-145.
박은용(1969), 『만주어문어연구(1)』, 형설출판사.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백인(1968), 「만주어 문어의 부동사 어미 -me에 대하여」, 『한글』 142, 한글학회, 72-102. (성백인(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70), 「만주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명대논문집』 3, 명지대학, 257-290. (성백인(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77), 「만문 특수문자의 로마자 표기법」, 『언어학』 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85-197. (성백인(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86), 「初期 滿洲語 辭典들에 대하여」, 『동방학지』 5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19-258. (성백인(1999b)에 재수록)
성백인(1999a), 「청조의 청문감 편찬」, 『새국어생활』 9(1), 국립국어원, 145-157.

성백인(1999b),『만주어와 알타이어학 연구』, 태학사.
신현규(2021),「'-을까' 疑問文의 對話 參與者 情報 分布와 恭遜性 硏究」,『語文硏究』4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35-161.
연규동(2012),「만주어의 원망법」,『언어학』6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32.
연규동(2014),「청학서: 선조들이 만난 만주어」,『새국어생활』24(1), 국립국어원, 39-60.
유원수(2014),「위구르 계통 문자들의 역사와 현황」,『한글』306, 한글학회, 179-211.
이광호(2004),『근대 국어 문법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기웅(2011),「러시아어 소사 "И"에 대해서」,『러시아연구』21(1),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157-178.
임동훈(2008),「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한국어 의미학』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정제문·김주원(2008),「만주어 사전『御製淸文鑑』(1708년 序)의 연구—그 뜻풀이에 주목하며—」,『언어학』52,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17-143.
진준화(2019),「현대중국어 서법(語態, mood)과 서법 체계(mood system)구현 양상」,『중국언어연구』84, 한국중국언어학회, 223-250.
최계영(2016),「『漢淸文鑑』의 사전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계영(2017),「『御製增訂淸文鑑』의 신규 표제어 연구」,『알타이학보』27, 한국알타이학회, 25-50.
최계영(2020),「청학서 연구」, 2020 국어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1), 국어사학회, 179-207.
한국연구재단, 만주어 및 만주문학자료 총서구축, Retrieved December 16, 2022, from http://ffr.krm.or.kr/base/td037/intro_db.html
季永海·劉景憲·屈六生(1986),『滿語語法』, 北京: 民族出版社.
爱新觉罗乌拉熙春(1983),『滿語語法』,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中国第一历史档案馆 整理·编译(2009),『内阁藏本满文老档』, 瀋陽: 遼寧民

族出版社.
黃润华(1983),「滿文飜譯小說述略」,『文獻』16, 北京圖書館, 6-23.
河內良弘·淸瀨義三郎則府(2002),『滿洲語文語入門』,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岸田文隆(1990), 「『三譯總解』 底本考」,『알타이학보』 2, 한국알타이학회, 87-103.
岸田文隆(1998),『滿文金甁梅 譯註』, 東京: 第一書房.
滿文老檔研究会(1955-1963),『滿文老檔』, 東京: 東洋文庫.
今西春秋(1992),『滿和蒙和對譯 滿洲實錄』, 東京: 刀水書房.
落合守和(1986), 「『滿漢字淸文啓蒙』に反映された18世紀北京方言の音節体系」,『靜岡大學教養部研究報告 人文·社會科學篇』, 靜岡大學教養部, 22-2: 111-151.
上原久(1960),『滿文滿洲実録の研究』, 東京: 不昧堂書店.
松岡雄太(2005), 「『捷解蒙語』와 滿洲語 資料의 關係」,『알타이학보』 15, 한국알타이학회, 55-70.
津曲敏郎(2002),『滿洲語入門20講』, 東京: 大學書林.
竹越孝(2016),『滿漢字淸文啓蒙 [会話篇·文法篇]—校本と索引—』. 好文出版.
Aikhenvald, A. Y. (2004), *Evidenti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ikhenvald, A. Y. (2016), 'Sentence type', in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41-165.
Biber, D. (ed.),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Bonnefon, J. & Villejoubert, G. (2006), 'Tactful, or doubtful? Expectations of politeness explain the severity bias in the interpretation of probability phrases,' *Psychological Science* 17: 747-751.
Bybee, J. L. (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Amsterdam: John Benjamins.
Bybee, J. L., Perkins, R. D., & Pagliuca, W.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inque, G. (2006), *Restructuring and functional heads, vol. 4: The cartography of syntactic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rajzyngier, Z. (2002), 'System interaction in the coding of modality', in Sjef Barbiers, Frits Beukema & Wim van der Wurff (eds.), *Modality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verbal system*, Amsterdam: John Benjamins, 165-184.

Gorelova, L. M. (2002), *Manchu grammar*, Leiden/Boston/Köln: Brill.

Hengeveld, K. (1989), 'Layers and operators in functional grammar,' *Journal of Linguistics* 25: 127-157.

Kim, J., Ko, D., Chaoke, D. O., Han, Y., Piao, L., & Boldyrev, B. V. (2008), *Materials of spoken Manchu* (Altaic Languages Series 1),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König, E. & Siemund, P. (2007), 'Speech act distinctions in grammar', in Timothy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6-324.

Narrog, H. (2016), 'The expression of non-epistemic modal categories', in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89-116.

Norman, J. (2013), *A comprehensive Manchu-English dictionary*, Cambridge/ Massachusetts/Lond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Nuyts, J. (2001), *Epistemic modality, language and conceptualization: a cognitive-pragmatic perspective*, Amsterdam: John Benjamins.

Nuyts, J. (2005), 'The modal confusion: On terminology and the concepts behind it,' in Alex Klinge & Henrik Høeg Müller (eds.), *Modality: Studies in form and function, London: Equinox*, 5-38.

Nuyts, J. (2016), 'Analyses of the modal meanings', in Jan Nuyts & Johan

van der Auwera (eds.), *The Oxford handbook of modality and mo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1-49.

Poppe, N. (1964),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Portner, P. (2009), *Moda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ntzsch, J. (2012), 'Scope hierarchies and modality in Manchu', *Studies Language* 36/4, 848-881.

Roth Li, G. (2000),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Song, H. (2014), 'Zur syntaktisch-semantischen Charakterisierung der Partikel im Russischen',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 Славянским Языкам* 19(1),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 Languages, 171-187.

Zikmundová, V. (2012), *Spoken Sibe: morphology of the inflected parts of speech*, Prague: Karolinum Press.

Аврорин, В. А. (2000), *Грамматика Маньчжурск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Язы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Наука.

Захаров, И. (1879), *Грамматика Маньчжурскаго Языка*, Санкт-Петерб ург: Типография Императорискоӥ Академии Наук.

Пашков, Б. К. (1963), *Маньчжурский Язык*,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тво Восто чной Литературы.

Abstract

Distributions and Meanings of Epistemic Modal Particles in Written Manchu

Minha Kang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categorize the words of written Manchu considered to be “particles” based on their linguistic distributions. It demonstrates that the words {*dere*, *kai*, *ayoo*, *aise*} form the same paradigmatic relation and are the morphemes expressing the epistemic modality. For this reason, I refer to the two works of literature *Manwen Laotang* (<滿文老檔>) and *Manwen Sanguozhi* (<滿文三國志>) reflecting the early written Manchu as the primary source for this study. Additionally, I confirmed the expressions in modern Korean language corresponding to these words for epistemic modality.

In Chapter 1, based on the argument of Nuyts (2016), I summarize the concepts of “modality” and “epistemic modality.” In Chapter 2, I confirm the description of Manchu particles from metalinguistic literature and critique previous studies on Manchu particles, particularly Rentzsch (2012). In light

of this, I argue that the original studies do not consider linguistic distributions and functions, employ only simple terminology, and lack diachronic and synchronic consistency in their source material.

In Chapter 3, limiting the sources to the written Manchu of the 17th century, I set up the paradigmatic relations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of the words in previous studies, and recategorize them. As a result, I contend that the words *bi*, *akū*, *-o*, *dabala*, *wajiha*, *unde*, *be,* etc., which were originally considered particles, have certain parts of speech. Furthermore, I contend that the words {*dere*, *kai*, *ayoo*, *aise*}, which appear at the end of a sentence, constitute a paradigmatic relation and impart a particular meaning to the sentence it modifies.

In Chapter 4, I show that {*dere*, *kai*, *ayoo*, *aise*} expresses the epistemic modality: *dere* is the speculative expression; *kai* demonstrates the deductive meaning; *ayoo* expresses the dubitative modality; and *aise* is the expression of assumptive modality.

In Chapter 5, I identify the corresponding expressions in Modern Korean language for these epistemic modality particles. The most common translation of *dere* was conjecture, whereas *ayoo* was either interpreted as a supposition or a worry. The word *kai*, for which there is no suitable Korean equivalent, was translated into a variety of expressions. *aise* was translated into tag question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reexamined the arbitrary category of “particles” in terms of the paradigmatic relationships of meanings and distributions. I also systematically introduced the concept of “modality,” a universal linguistic category. Finally, I offer a synchronically and diachronically consistent argument by limiting the sources for studies to the 17th-century written Manchu.

keywords : written Manchu, particles, epistemic modality, syntagmatic relations & paradigmatic relations, *Manwen Laotang* (滿文老檔), *Manwen Sanguozhi* (滿文三國志)

***Student Number* : 2021-25649**